

한인뉴스

2015

7

VOL. 229

haninnewsinni@gmail.com



SAMSUNG Galaxy S6 edge

NEXT IS NOW

Beautifully Crafted With **Glass & Metal**

Revolutionary **Dual Edge** Display

Capture Moments Instantly

With **Quick Launch** Camera

Save More Time With **Fast Charging**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hunting)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인니 국세청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 세정 활동 동향>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탈세 및 체납자에 대해 “Gijzeling” (Tax Hostage, 체납자 인신구속,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이라는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억 루피아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장기간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 출국금지 또는 인신구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UU No19. 1997 Penagihan pajak dengan surat paksa)

● 제29조-제32조 : 1억 루피아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6개월 연장 가능)

● 제33조-제36조 : 1억 루피아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 때까지 6개월간 인신구속 (6개월 연장 가능)

● 국세청은 이미 많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수 십명의 체납자를 구금하였으며, 현재 세금을 체납한 한국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및 재외동포들의 대응요령 안내>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 및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에 현재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기업은 조속히 미납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자금여력이 어려워 당장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면담하여 세금 납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향후 납부 방법을 상의한 후 세무공무원과 약속한 납부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특히, 분납을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압류, 구속 등 곧바로 체납처분이 시행되므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 특수한 상황

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이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세청은 2015년에 한해 미납된 체납 세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체납 세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월 2%)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재무부령 No.29/ PMK. 03/2015)

- 면제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세무조사, 이의신청, 조세소송 등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미납 이자(국세기본법 제19조 1항)는 면제됩니다.

- 납세자는 미납된 체납 세금의 본세를 관할세무서에 먼저 납부하고 세무서로부터 별과금고지서(STP)를 발급받아 이와 함께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미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기 바랍니다.

<대사관의 향후 조치>

● 대사관은 국세청의 세정동향, 세법 등 주요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한국기업과 재외동포들께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에 의한 출국금지, 구속 등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 (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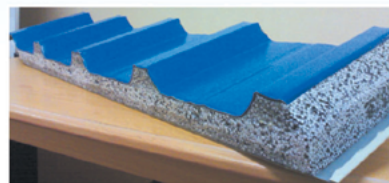
PT. KYUNG HEUNG INDONESIA

인도네시아 최초 샌드위치 판넬 생산업체

SANDWICH PANEL™ ROOF AND WALL

Merit:

- High Efficiency insulation (no need A/C for housing)
- Protection of dampness, insulating effect, and water leakage.
- Long lifetime (approx 20 years)
- Simple erection and saving cost steel structure (CNP distance 1500mm)
- Clean factory



1. Type of Sandwich Panel™:

Roof : V-250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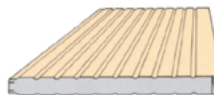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1.000			
	250	250	250	250
Thick(mm)	50	75	100	
Weight	0.6T	10.96	11.36	11.76
kg/m ²	0.6T	12.93	13.33	13.73

Wall : KHW-3 Typ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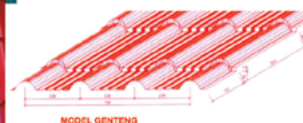
	1.000			
	250	250	250	250
Thick(mm)	50	75	100	150
Weight	0.5T	9.99	10.19	10.59
kg/m ²	0.6T	11.56	11.76	12.16

Tile Roof : Genteng-Typ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Length for the above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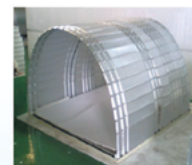
- Customer request up to 12Mts
- More than 12Mts to be discussed



Arch Type Roof : ATR-250

- Radius depend upon customers requirement.

Product & Fabrication: Doors, Swing Door, Hanger Door, Louver Etc



2. PERFORMANCE:

Korean Customer (2001):



Local Customer (2003):



Foreign Customer (2008):



Head Office:

Wisma Slipi 4th floor suite #F403
 Jl. S Parman Kav.12 Jakarta Barat
 Telp: (021) 5307244 Fax: (021) 5307256
 CP: Mr. Haryanto Choi HP: +628119568710
 E-mail : haryantochoi48@gmail.com
 www.trusteedcompany.com

Factory:

Jl. Raya Serang KM.12 kampung Gebang
 Cikupa Tangerang
 Telp: (021) 59402532 Fax: (021) 59402496
 CP: Mrs. Lusi HP: +62815-10598501
 E-mail : sndpnl@yahoo.com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2015 아시아한상대회(말레이시아)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논설위원 칼럼/ 서독광부와

팔리만탄의 해병대원<김문환 논설위원>

2015 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6.25 전쟁 기념식 및 사진전

농업사료, 개소식개최

인니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개최

KITA, 한-인니 경제협력세미나

민주평통, 통일교육 강연회

2015 아시아 한상대회

직관과 논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할지라도

재난은 항상 우리를 당황케 하고

중처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리더는 적절한 타이밍에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전문가와 실무자는 큰 틀에서 오류를

줄여가야 합니다.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흩어져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모습은

매뉴얼의 무용함을 또 한 번 느끼게 하였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우리프레스티지 2015 정기총회	
제8기 차세대무역스쿨 수료식	
제20회 세계웅변대회	
모의 재외선거	
KOICA, 봉사단 파견 이행약정 체결	
중장기 자문단 공동워크숍	
메르스관련 언론 간담회	
집중! 이 사람 / 무역협회	
<남경완지사와의 인터뷰>	
JIKS 소식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 정기연주회	
2015 6월 경제브리핑.....	32
지상갤러리/ 비오는 날, 파리거리	
<김선옥>.....	34
7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	38
문화복지 밈2<범상규>.....	41

Jalan-Jalan Jakarta / 해양감독 전망대	
<사공경>.....	44
신성철 칼럼/ 헛갈리는 인도네시아비자.....	46
즈빠라 스마랑 여행기 <이수진>.....	50
정기탐방진행자 교육기 <최우호>.....	54
따나또라자 2	56
박정자시인의 사진 읽기(사진;김성월).....	59
법률해설/ 형사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승민>.....	60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	64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논설위원 칼럼>



1963년 7월 한국정부 산림개발조사단 수카르노 대통령 예방
-사진 우로부터, 최계월 사장, 심종섭 산림국장(단장), 수카르노
대통령, 박영 외무부경제조사과장, 모하맛 익산 대통령비서실장,
농림부 임정과장(김OO).

서독광부와 깔리만탄의 해병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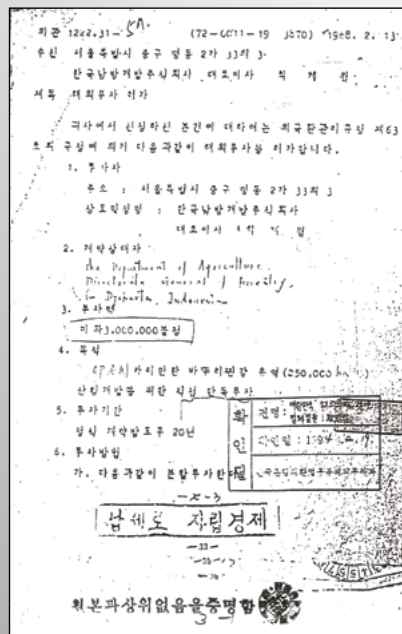
김문환/논설위원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3공화국 당시의 경제발전 성과가 유난히 강조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이전 정권이 지나치게 그 치적을 왜곡한 데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는 자세만은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1964년 12월 박대통령과 수행원 24명이 루프트한자 민항기에 커튼으로 칸막이 한 채 28시간 동안 돌고 돌아 서독 쾰른 공항에 도착한다. 이 당시 독일어 통역관으로 함보른 탄광까지 수행한 백영훈 교수의 증언록, 작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국제시장’ 이라는 생동감 넘치는 영화, 그리고 최근 모 일간지에 기고되고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육성증언을 통해,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은 대일청구권자금과 더불어 서독광부, 간호사의 눈물겨운 희생이 그 시발점이었다는 팩트가 정설화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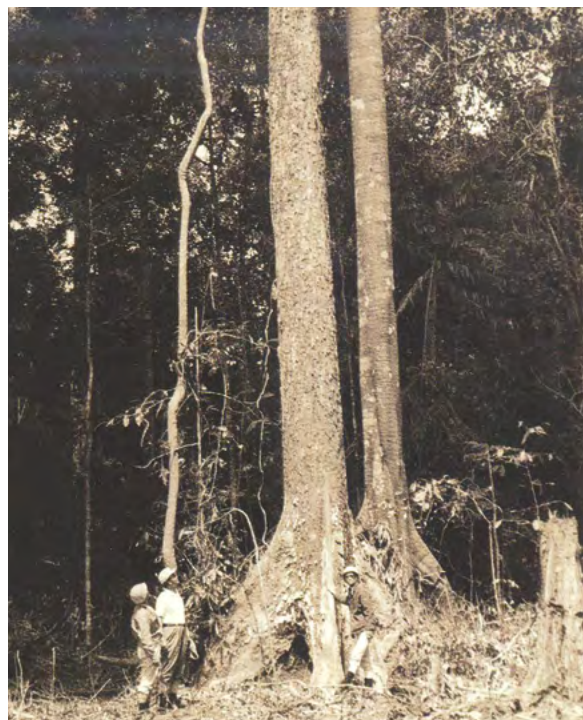
마침 서독을 방문 중이던 김종필 전 총리가 신
웅균 주재국 대사로부터 본국으로부터의 인력송
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하자마
자 박대통령에게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관철되었
다는 파독광부 제1진 123명은 1963년 12월 22
일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을 경유하여 루르 산업단
지 내에 있는 함보른, 에슈바일러 두 탄광지로 배
치된다. 1977년까지 7,936명의 광부와 11,057
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고국으로 송금한 달
리는 연간 5천만불에 달해 이는 GNP의 2%를 차
지하였다 한다.

다수가 대졸출신이라 하여 ‘신사광부’ 라는 별
칭까지 붙여지며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던 1968
년11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보르네오라고 부
르던 깔리만탄섬 남부지역 작은 어촌, 3세대 16명
만이 살고 있던 전인미답지 바투리친(Batulicin)
에 한국인의 상륙이 시작된다. 박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하 장군의 지원아래 해
병대 상륙대원, 또는 공병하사관 출신으로 구성
된 120여명의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그 주역이었
다. 이들 선발대는 남부 깔리만탄 주도 반자르마
신에서 소형어선을 빌려 타고 격한 파도를 넘나들
며 전인미답지 정글에 도착한 것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 상륙작전을 지휘한 책임자는 인천
상륙작전을 거쳐 9.28 수복 당시 중앙청을 탈환한
선봉중대장이었던 함덕창 예비역 중령이었다. 그
는 김동하 장군의 지휘아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
리에 수행한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었다.

한국기업 해외진출사에 큰 방점을 찍는 이날이
있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숨어 있었
다는 사실을 퇴역한 그 당시 관계관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제1차 외유를 떠난 김종필 당
시 중앙정보부장이 미국방문 후 귀국길에 도쿄에
들러 오히라 외상과 대일청구권협상을 진행할 당
시, 마침 일본을 방문 중이던 수까르노 대통령이
김종필 부장을 만날 기회를 갖는다.



1968년 2월 17일자 재무부 투자허가서



1970년대 깔리만탄 산림개발 현장



함보른탄광 갱도 속의 한국인

이는 수까르노와 이미 인연을 맺고 있던 모 재일 교포 사업가가 주일대표부 최영택 참사관을 통해 조율된 결과였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양국 수뇌부의 회동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사업’은 8개월 후인 1963년 7월 농림부산림국장이던 심중섭박사를 단장으로, 박영 외무부경제조사과장, 농림부임정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이 모하맛 익산(Mohammad Ichsan)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보고르 대통령궁으로 수까르노 대통령을 예방한 후 체류기한을 연장해가면서까지 끌리만만 지역 산림현장 조사를 마치고 의정서를 체결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외환보유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투자허가가 지연되면서 장기영, 박충훈 두 경제부총리를 거치는 동안 5년여의 각고 끝에 1968년 2월17일이 되어서야 300만불의 ‘직접 단독 투자허가서’가 재무부로부터 발급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외직접투자 제1호’라는 족적으로 남게 된다. 선발기업의 안착으로 이후 후발기업들이 러시를 이루게 되어 산림개발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생산원가가 입방미터당 30불선이던 원목 판매가격이 2차 오일쇼크 직후의 ‘자원무기화’

에 편승하여 100불~200불까지 치솟았으니, 수익성의 규모는 자명하였으며, 한편 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산업으로 특화한 국내의 합판업계도 국가 세수와 외화가득 측면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파독광부 희생자수는 60여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바뚜리쥘 한곳에서만도 안전사고 등으로 희생된 현지인과 한국인의 수가 칠십명에 이르러 위령탑이 조성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된 서독광부와 간호사들은 독일어를 포함하여 파리를 비롯한 유럽각지, 캐나다, 미국에까지 이주의 반경을 넓혀 한인사회의 국경을 넓혀 왔었다. 한편 끌리만만 ‘정글의 사나이들’은 이곳에서 자수성가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며 국력신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과 김종필 총리의 추진력이 원동력이 된 서독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국가적인 두 사업을 다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독일의 루르, 함보른, 에슈바일러와 인도네시아의 끌리만만, 바뚜리쥘, 발릭빠반의 지리적 대칭성의 일맥상통과 더불어, 한민족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의 혼은 하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1. 최근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동포사회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2.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이민청(본청) 차원의 단속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 이민청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연중 체류자격 외 활동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이민청 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상기 명령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 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가 없이도 조사·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집행명령서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은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당직(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 ~ 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4. 한편, 최근 경찰에서는 마약 단속 등 범죄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동포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신분증(여권 또는 KITAS) 원본을 소지하고, 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이라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소지자의 경우 원본 소지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토록 하여, 만일의 경우 원본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비 필요

2015 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및 골프대회



2015년도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회총회를 13일 땅어랑 (serpong 소재 BSD)에서 개최하고 2014년의 활동과 결산을 보고하고 하반기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례에 이어 신기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같이 있으니 힘이 난다.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한인사회를 든든히 받쳐주니 존경받는 한인사회가 되어간다”고 말하고 “한인사회의 표본이 되어 주길 바라며 더욱더 각자의 위치에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신기엽 회장은 한인 진출 50년사 편찬위원회 출범, 한인회 홈페이지 활성화, 세월호 희생자 및 추모 성금모음 등 각종 경제 문화 예술 등에 대한 한인회 및 분과위의 활동과 결산 예산에 대한 보고와 심의를 받았다.



한인회는 한-인도네시아 양국 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축제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11월 중순경)’,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한국-인도네시아와 함께 경축하고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차 없는 거리에서

견기대회(8월 16일, 오전 6-8시, 수디르만-땀린-모나스 광장)를 자카르타 주정부와 공동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회는 대사관 동포안내문 배포 및 홍보, 재외동포재단 해외사업 참여 및 홍보활동, 영사업무 관련서류 번역,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업체의 투자문의, 재난 구호 성금 모금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 인도네시아 한국관련 상담 및 자료 지원 업무 등 월 200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있다.

총회가 끝나고 제 2부 순서로 총회 전 개최된 한인회 이사, 운영위원 골프대회에 대한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졌다. 골프대회는 SEMI-SHOT GUN 방식으로 시작, 청명한 햇살 아래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6.25전쟁 제65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6.25전쟁 제65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오전 12시30분 한국자카르타국제학교의 나래홀에서 열린 기념식은 박상민공사와 신기업한인회장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 및 한인단체장들, 한국자카르타국제학교 김승익교장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자총인니지부회원 등 약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6.25전쟁 동영상(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감상, 결의다짐,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현상범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값진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께 보답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지 고민하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업한인회장은 기념사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갖춘 발전된 조국의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자기나라의 역사를 아는 학생이 되길 당부했다.

또한 오늘의 행사에 이어서, 6.25 감상문 공모전과 9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한민국 근현대사 퀴즈대회인 “도전! 역사왕”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녀 학생대표 2명이 선창하며 함께 결의를 다지는 시간에는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큰 소리로 외쳤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의 값진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래홀 로비에서 열린 사진전시회는, 예년과는 달리 광복에서부터 6.25전쟁 중 주요 전개과정과 휴전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도발사진 등을 시기적으로 나열하여 학생들에게 6.25전쟁을 시기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본 전시회는 6월27일(토)까지 계속된다.



농협사료, 인도네시아 본격 개시를 알리는 타피오카 전분공장 개장식 및 법인개소식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6월10~11일 양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전분공장 개장식과 법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10일, 람퐁시에서 개최된 전분공장 개장식에는 최원병 회장, 농협사료 채형석 사장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농협사료 주요 이사들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람퐁군수, 람퐁주농업지도자협회장, 농민단체 회장, 지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 등을 비롯한 내빈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와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장 개장식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람퐁농민단체 간에 농업분야협력을 주제로 한 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돼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구축될 한국-인도네시아 농민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농협사료 해외사업은 한층 더 추진력을 얻게 됐다.

최원병 회장은 “사료원료를 생산국에서 직접 조달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조달경

로의 다양화로 국내 사료가격 안정과 한국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협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농업 경쟁력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막중한 사명을 띤 사업으로 이번 첫 발을 내딛는 농협사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지의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11일, 자카르타에서 농협사료 인도네시아 법인 개소식에 대사관 이경섭 공사, 한인회 신기업 회장,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체 대표 등 현지 내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인회 신기업회장은 “농협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 대표기관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양한 먹거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여 주길 바란다”며 농협사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개최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은 6월 25일(목)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근로(Ketenagakerjaan) 및 건강(Kesehatan) BPJS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설명회는 인니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부령 등 최저임금 관련 이슈와 7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연금보장(Jaminan Pensiun)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의 프로그램 소개 및 쟁점을 우리기업인들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3. 설명회에서 Wahyu Widodo 노동부 임금사회보장국장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입안이 진행 중이며,
- 그 동안 걱정생계비(LKHL)에 최저임금기준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던 것이 비해 정부령안은 최저임금인상 공식(Formula Penentuan Kenaikan UM)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산성(α)과 경제성장률을 곱한 값에 걱정생계비 인상률(%)을 더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16년도의 최저임금은 2015년도 최저임금+(2016년 최저임금인상률(%) × 2015년 최저임금)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Wahyu 국장은 이러한 새로운 최저임금인상 공식이 적용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시기를 확정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업과 사회적 갈등을 억제할 수 있고 기업들이 최저임금 시행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지방임금위원회(DPD/DPK)에서는 특정 세력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확실, 공정, 단순하게 임금인상분을 건의할 수 있게 되고,

- 사업주는 인건비를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매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 한편, 연금보장 도입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연금보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관련 정부령 제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보험료는 당초 8%안에서 낮춰 월급여의 3%로 정하여 사업주 2%, 근로자 1%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근로 BPJS의 Hardi Yuliwan 가입확대국장과 건강 BPJS의 Widiyanti Utami 대외협력국장은 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7.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최대현안인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관련한 이슈를 인니정부 및 사회보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토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이며,

- 앞으로도 대사관과 코참은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애로와 건의사항을 인니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한-인니 경제협력 세미나



9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이하 무역협)는 한-인도네시아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카르타에 지부를 개설, 동남아시아 남부시장에 진출하는 무역업체 지원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즈칼튼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개소식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 신기업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상무부 구스마르디 부스파미 총국장,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신파 위자야 부회장, 협회 회장단 등 한·인니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인호 무역협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최근 글로벌 세계경기의 저성장 속에서도 5~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래 전력, 도로, 항만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임을 강조하고, “자카르타 지부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진출 희망기업들의 교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는 게임, 전자상거래, 모바일 메신저 등 한국 IT기업의 활약과 K-POP,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높은 시장으로 IT서비스 및 한류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서비스 정책지원팀’과 연계해 한국 IT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명의 세계 네 번째의 인구 대국, 아세안 10개국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천연가스, 석탄 등이 풍부한 자원국으로 197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당시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작년 기준 236억 달러까지 확대되는 등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역관계자는 전망했다

개소식이 끝난 후에는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양국간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평통, 통일교육 강연회

16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회장 박동희)는 ‘통일교육 강연회’를 한국국제학교 나래홀에서 개최했다.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강연회에는 한인회, 대사관, 한인사회 단체장 및 임원 외에 JIKS, 밀알학교, 족자한글학교, 열린한글학교 등 청소년을 가르키는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박동희 회장은 “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성향으로 통일에 무관심을 보이는 지금,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통일시대 주역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선생님들께 당부했다.

탈북한지 11년 된 정은찬 교수는 “분단국가에서 통일은 학생들의 삶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통일 한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의 북한생활, 한국적응 생활 등을 토대로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통일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학생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양한 통일교육 및 체험, 강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학생들은 통일이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길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은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다. 학교, 가정, 사회 모두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한국의 미래인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5 아시아한상대회

“한상 네트워크, 이제 아시아가 주도”



‘2015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총회에서 범(凡)아시아권 한인회장 결성체의 대회 명칭을 ‘아시아한인회장대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경제·문화의 중심은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21세기 한상(韓商) 네트워크는 아시아 한상들이 주도하자.”

아시아 각국에서 활약 중인 대표 한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퍼스트월드힐 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한 제10회 아시아한상대회에 17개 역내 국가의 아시아 한상 110명이 참석해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젊은 한상들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승은호 아시아한상대회장(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은 “아시아에서 젊고 새로운 한상들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선배 한상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회장은 이어 “이제 한상들도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민간 외교관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창근회장, 제17기 민주평통 아세안 부의장으로 위촉



제17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이 확정됐다. 민주평통 해외지역과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제17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재가를 받았다”면서, “총 117개국 3,278명의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16기와 같이 17기도 43개 협의회가 출범한다. 총 해외지역회의 수는 31개. 해외지역회의 수는 16기보다 7개가 늘었다. 해외부의장은 16기와 마찬가지로 5명이다. 오공태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일본 부의장으로, 이창호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장이 중국 부의장으로, 송창근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아세안 부의장으로,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이 유럽부의장으로 위촉됐다. 김기철 미주부의장은 유임됐다. 전민식 파워텍대표는 동남아 남부협의회장으로 확정되었다.

제17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들은 7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활동기간은 2년이다.

한편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 4월6일까지 각 공관별로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았다. 공관별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외자문위원명부가 전달됐고,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우리프레스티지클럽 2015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6월 16일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행장 Madyantoro Purbo, M.B.A.) 고객사 모임인 “우리프레스티지클럽(회장 이진수)” 총회가 BSD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체 12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우리프레스티지클럽의 2015년 정기총회는 약 80여 회원사와 10여개 초청회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는 1부 골프대회, 2부 우리프레스티지클럽 총회, 3부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어 회원사간의 우정을 다졌으며,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인 은행장과 BOD, BOC, 한인회 신기업 회장 등도 참석하여 한국 최초의 해외은행 인수, 합병은행으로서의 한-인니간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

우리프레스티지클럽 이진수 회장은 “우리소다라은행은 현지은행을 합병함으로써 진정한 해외은행으로 거듭나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한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국의 대표은행이 될 것이다. 우리프레스티지클럽도 회원사간에 서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한 모임이라는 점에서 우리소다라은행과 발맞춰 가족처럼 은행과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김동수 수석부행장은 “항상 진심어린 애정으로 우리소다라은행을 격려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다라은행과 합병 후 더 커진 “BANK WOORI SAUDARA” 통합 법인으로서 앞으로도 인니한인사회에 사랑 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화답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소다라은행 현지 직원들이 1개월 넘게 준비한 특별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 이벤트를 마련하여 회원사간에 강한 유대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기사제공: 우리은행]





제8기 차세대무역스쿨 수료식

월드옥타인도네시아(회장 강희중)는 제8기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설하여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인도네시아 거주 차세대 77명(KOTRA 청강생 27명 포함)이 무역스쿨 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자카르타 그랜 멜리아 호텔 볼룸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강사로는 실무무역(이지현 짐모아 대표), 성공을 위한 현장관리/용무도 무도 보급(배응식 대표), Capital market(이진혁 키움증권 대표), Economic View on indonesia from overseas(이화수 하나은행 부행장) Hutchison Port Holdings And TJ Priok Introduction(허치슨 김창수 상무), 직업발달(박현순 KOWIN 회장), 인니 문화의 이해와 이슬람(안선근 교수), 준비된 사람이 미래를 연다(삼성전자 이강현 부회장), 말하기 수업 스피치를 통한 자기 성장과 성찰(양수려 실장)이 참여했다.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월드옥타는 2003년부터 현지 재외동포 1.5~2세대들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교육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국제무역 감각 및 차세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미래의 경제 리더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차세대 무역스쿨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 육성을 통해 현지 전문가를 배출하는 한편 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우수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을 발굴해 한민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 육성·활용하는 사업이다.

강희중 회장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한국과 해외의 차세대와 네트워크 형성, 인도네시아 고위층 자제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시켜 향후 성공의 지름길에 이끌어주는 유일한 무역스쿨로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제20회 세계한국어옹변대회 인도네시아예선대회’ 개최

인도네시아 연사 2인, 한국인 연사 1인 제주
도 본선 진출

지난 6월 13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제20회 세계한국어옹변대회 인도네시아예선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옹변인협회(회장 김경석)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옹변인협회 인도네시아 지회(회장 정선)가 주관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한국옹변인협회 김경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어옹변대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 14명(한국인 5명, 인도네시아인 9명)의 연사가 참여해 한국의 문화와 관광, 한국의 역사, 해외에서의 한국어보급, 한반도 평화통일, 한류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전달했다.

이날 한국행 본선진출 티켓을 지원받는 대상상(대상)에는 가자마다 대학에 재학중인 제뉴아리 아닌다 빠뜨리(JANUARY ANINDYA FITRI) 학생, 한인회장상(최우수상)에는 직스(JIKS) 11학년에 재학중인 이송 학생과 우이대에 재학중인 나따니아 데비나(Nathania Devina)가 각각 선발되었다.

대상수상자인 아닌다 빠뜨리 학생은 ‘나에게 한국은 무지개이다’라는 제목으로 무지개 각각의 색을 통해 자신이 느낀 한국을 설명했다. 그녀는 소나기가 온 다음 아름답게 하늘에 그려지는 무지개처럼 한국도 힘든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성장통을 겪은 후 지금은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전해갔다.



가자마다 대학 JANUARY ANINDYA FITRI
‘대상’ 수상

원래의 규정대로라면 한국인연사 1명, 외국인연사 1명을 선발해 한국 본선대회에 진출할 기회를 부여하나 사단법인 한국옹변인협회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옹변대회의 활성화와 한국어의 보급을 위해 이번 대회를 통해 특별히 외국인연사 1명을 더 선발했다.

시상식 후 한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상수상자인 아닌다 빠뜨리 학생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하며 “한국에 가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한식인 닭갈비를 먹고 경희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있을 시 즐겨 찾았던 남산타워도 다시 꼭 가보고 싶다”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녀는 “저처럼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한국어 대회는 너무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계속되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후배들, 친구들 역시 나와 같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본선 준비도 철저히 하여 꼭 좋은 결과를 거두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본선대회는 오는 10월 9일(금)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다. 이 본선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옹변인협회가 주최하며 세계한국어문화협회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통일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표소
on/在外投票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실시된 석부회장은 “선거의 효율성을 높여로 잘 준비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표소
on/在外投票所

管理科
秘書官

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실시된 석부회장은 “선거의 효율성을 높여 로 잘 준비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어디서 : JIKS
대강당

항공권,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 외장하드



역사 교재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I 구한말-일제 강점기 1876년 갑오 10월 1일 1945년 8.15광복까지 박윤식 지음 한울 197쪽 14,000원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4 잊을 수 없는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박윤식 지음 한울 207쪽 14,000원		출제 범위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제1권 & 제4권)				교재(제1권 & 제4권), 독도, 인도네시아(일방상식)	
저자 및 출판사				출제 형식	
박윤식 저 도서출판 휘선				주관식, 객관식, OX 문제	
				참가 신청	
				주후 공지에정 (일자, 방법)	
저자 및 책자 소개		http://blog.daum.net/gingko1280/12647797			
보유단체 및 기관	단체 및 학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땅그랑한인회, 한국문화원, JKKS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민교회, 늘푸른교회, 동부교회, 믿음교회, 열린교회, 조계종해인사 인도네시아, 주님의교회, 한마음교회, 한인성당(땅그랑공소), 한인성요셉성당,			
	중교기관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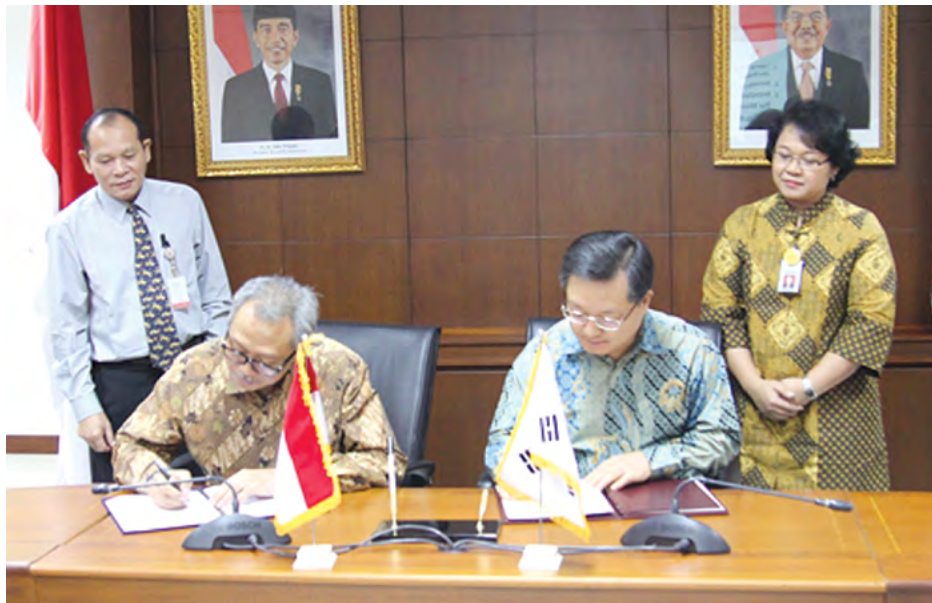
주관



후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코이카-인도네시아, 봉사단 파견 이행약정(IA) 체결



IA 체결식 (사진 설명 : 왼쪽, Ananto 문화교육부 국제협력국장. 오른쪽, 김병관 사무소장이 IA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고, 양국 간 협력에 기초한 사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월 국가사무처(SETNEG)와 봉사단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봉사단 파견부처들과 이행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IA체결을 통해 양국 간 봉사단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김병관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나라의 협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들이 파견되는 인도네시아 정부부처들과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 개별 부처들과 이행약정(IA; Implementing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금번 이행약정 체결식에는 김병관 사무소장, 아난토 문화교육부 국제협력국장, 라미딘 청년체육부 행정관리국장, 에디 유습 외교부 아태국장, 리카 국가사무처 해외기술협력국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코이카 봉사단 사업을 통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와 인도네시아 발전에 필요한 기술협력 확대를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최초 파견국 중 하나로 동 봉사단은 지난 199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되기 시작하여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니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봉사단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

력기반 마련을 통해 앞으로 봉사단원의 대폭적인 파견증대와 활동지역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각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며 이번 이행약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봉사단 활동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측 인사들도 그동안의 코이카 봉사단 활동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많은 봉사단원 수요가 있는 만큼 파견인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길 희망하였으며, 앞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봉사단원의 안전 및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여타 협력부처들과의 IA체결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며, 금번 IA체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봉사단원 규모의 확대와 함께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과 인도네시아 발전에 계속 기여하는 봉사단원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KOICA, 중장기자문단 공동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6월 17일 우리정부가 파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중장기자문단의 상반기 공동워크숍을 중부 자카르타 모리세이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숍에는 김병관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과 주인니 대사관 이경철 공사를 비롯하여 코이카와 정보산업진흥원(NIPA)의 자문단 등 16명이 참석하여 대표적인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코이카는 중장기자문단 활동현황과 향후계획을 소개하였고, 자문단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안내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모두 8명의 자문단이 정보통신부, 경제조정부, 무역부, 중소기업부, 교통부, 공공사업부에 파견되어 각 부처의 전략 및 정책



수립 지원, 기술적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맞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문단 파견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이카는 개별 자문단 활동에 머물지 않고 상호 전략적 연계와 활동영역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 메르스관련 합동 현지 언론 간담회 개최

메르스 관련 방한 관광객 감소, 현지 관광산업 관계자, 외신 문의 등에 대하여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는 6.19(금) 14시(현지시각) GKBI 에서 현지언론 초청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 30여 곳이 참석하였고 (현지 여행사 20여 개사도 함께 참석), 조태영 대사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등의 조치는 필요 없다는 WHO의 공식입장과 메르스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종합적

으로 설명하였으며, 오현재 관광공사 지사장은 방한 관광객에 대한 위생안전용품 제공과 지원조치 등을 설명하였다.

메르스 관련 실시간 종합 정보, 각국 언어로 번역된 보도자료 등은 www.mer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중! 이사람

한국무역협회
남경완지사와의
인터뷰



한 국무역협회(www.kita.net)는 해방 직후 1946년에 설립된 순수 민간경제단체로 무역 1조 달성과 세계무역 8강 등 한국무역의 기적을 선도해 왔으며, 70,000여 회원사와 함께 무역 활성화 및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 해소, 글로벌 바이어-셀러 매칭, 해외 시장 무역정보 제공, 민간 통상외교 및 경제협력,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미스 매치 해소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계 회사로는 COEX, KTNET(한국 무역정보통신), 한국도심공항, COEX Mall, 파르나스호텔, 한무쇼핑 등이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상사중재원 및 산학협동재단을 두고 있다.

Q 1

한국무역협회의 인니 진출 배경 향후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인도네시아는 약 2억 5천만명의 세계 네 번째 인구 대국이며, 최근 글로벌 저 성장세 속에서도 5~6%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신흥 경제 대국으로, 천연가스, 석탄, 팜 오일 등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한국의 아세안 최대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현재 약 2,200여개의 한국 기업과 약 5만 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여 현지 근로자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인니내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현지의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

필요한 정보 및 거래알선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의 중심지로 역동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카르타에 지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 가속화를 위한 판로 개척과 분야별 시장 정보제공 그리고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지원활동을 강화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지역의 유망산업 및 아이템을 발굴하고, APINDO, KADIN 등 인도네시아 경제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 민간 마케팅 업체를 발굴하여 바이어-셀러 매칭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무협은 현재 동경, 뉴욕, 워싱턴, 북경, 상해, 브루셀, 호치민, 뉴델리 그리고 금번 자카르타 등 총 9개 국가에 현지법인 및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Q 2

자카르타지부 소개 및 개설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카르타지부는 지난 2월말 한국에서 직원 2명이 부임하여 그간 각종 인허가업무와 사무실임대차 계약 그리고 직원채용 등을 준비하여 지난 6월 9일 국내외 귀빈 및 관계자를 모시고 개소식을 거행하고 본업무에 돌입하였다. 지부 사무실은 한국 기업 및 유관기관들이 밀집한 자카르타 남부 SCBD 내 Equity Tower 40층에 입주하고 있으며, 현지 전문 직원을 포함한 총 6명이 근무하게 된다.

모두가 경험하였듯이 초기에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조태영 대사님 그리고 한인회 신기업회장님을 비롯한 동포기업인들의 물심양면 지원하에 비교적 순조로이 개소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현지 문화와 업무처리 시간 등이 한국적 기업문화와는 차이가 있어, 본사로부터 “언제까지 끝낼 것인데? 왜 또 안 되는데?” 라는 질문에 현지 사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면 “별써 현지화 됐느냐?” 라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본사가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현지 근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사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나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현지직원들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여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마다 않고 열심히 도와 주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이는 당초 주위에서 들어왔던 바와는 전혀 달라 앞으로 효율적인 시스템만 잘 갖추어진다면 인니도 머지 않아 충분히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3

한인동포사회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협은 순수 민간경제단체로 인도네시아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교류에 유연성을 가질수 있어 앞으로 현지에서의 각종 활동과 사업 전개 등에 있어 좀 더 탄력을 받을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딘 무협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포사회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타 투자국에 비해 아주 짧은 진출 역사에 인니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로 성장한 한인동포 사회의 일원이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무협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월간 한인뉴스를 통해 한인사회 변화의 이모저모를 잘 파악할 수 있어 감사하다.



동포안내문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5개 공항, 4개 항만 등 총 9개 출입국항만에서만 시행됨)

-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대사관은 지난 6. 12.(금) 동포안내문을 게재하여 동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를 드린 바 있으나 아직 동제도가 시행초기이다 보니, 재외동포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도착비자는 폐지되는지?

- 폐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입국목적에 따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고 ‘도착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사증제도가 허용하는 입국목적은 어떤 것인지?

- 무사증제도는 오직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여기서, 관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국인이 여행으로 휴양, 자기개발, 관광명소 탐방의 목적으로 단기방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국내여행사 등을 통한 발리로의 신혼여행, 단체여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따라서, 가족방문 등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착비자 또는 방문비자 등을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관광 목적일 경우, 반드시 무사증제도로 입국해야 하며 30일 이상 체류는 불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30일) 만료 7~8일 전에 지방이민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이민청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무사증제도는 9개 출입국항만(5개 공항, 4개 항만)에만 적용되는 데, 입국한 출입국항만과 출국하는 출입국항만이 꼭 일치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 9개 출입국항만 중 하나로 입국해야 하고 출국할 때도 그 중 하나로 출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발리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자카르타에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무사증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있다면?

- 무사증제도는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동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 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 취재 목적, 사회문화 활동 목적 등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입국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국목적으로는 ‘가족방문’ 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경우 되도록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민청의 단속 활동 등을 통하여 체류자격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도착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미팅, 회사 내 컴퓨터 사용 등의 경우에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민청에 단속될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회사 등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 회의 등을 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대사관은 향후에도 무사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재외동포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KS에서 BIPA 과정 공부해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UNAS 대학 BIPA과정(Bahasa Indonesia untuk Penutur Asing: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 교민들이 보다 쉽게 BIPA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UNAS 대학 담당 교수진이 직접 JIKS에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민들의 인

도네시아 적응 및 인도네시아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JIKS와 UNAS 대학이 힘을 모은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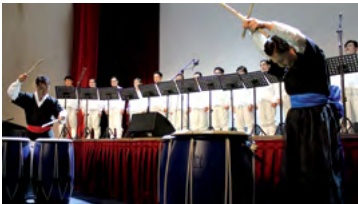
본 BIPA과정은 JIKS 재학생 및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급·중급·고급 3과정으로 편성되어 매주 토요일 오전에 4시간씩 실시되고 있다.

JKS와 UNAS대학은 앞으로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BIPA과정을 이어 갈 예정이다.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 제3회 정기 연주회



지난 2015년 6월 7일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라는 소재목으로 롯데 쇼핑 에베뉴 아이스 펠리스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장에는 좌석이 부족하여 복도까지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주었고 주인니 한국대사 부부도 참석하여 아버지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두 시간에 걸쳐 펼쳐진 공연은 가곡, 가요, 동요, 퍼포먼스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회자 차인숙 씨가 공연의 시작을 알리자 아버지들은 첫 곡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노래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바벨론의 유배 때의 상황이 담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불렀다. 열린 브라스 밴드와 협연으로 더욱 웅장하였고 삶에 고단한 아버지들의 마음이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다.

유은영, 김아람, 변성연 씨의 피아노, 플룻, 첼로 연주와 Arte 여성합창단, 장방식 씨와 정방울 씨의 북퍼포먼스,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의 찬조 공연은 이번 연주회를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수놓았다.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은 ‘옛장수 할아범; 을 노래하면서 직접 객석에 내려와서 옛을 나누어 줌으로 객석에게 재미까지 더해 주었다.

특히 다양한 변주의 아리랑 공연은 듣는 이의 마음을 몽클하게도 해주고 저절로 어깨춤을 추게도 하는 등 인종, 나이를 떠나 모두가 하나로 어울어지는 시간이었다.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은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한인(아버지)들이 모여 2012년에 만든 단체로 지난 4년 동안 세번의 정기공연은 물론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아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휘자 안영수 씨는 인사말을 통해 ‘첫출발은 그저 노래가 좋아서 했고, 두 번째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했고, 세 번의 연주를 치르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노래를 통해 느낀 사랑과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며 마음을 전하였다.

아버지 합창단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류태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노래하는 시간만큼은 생활과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럿이 모여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자카르타의 생활이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회를 거듭 할수록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앙상블’의 다음 공연이 기대된다.

SWA 11학년 곽한규 기자



2015 년 6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범 운행한 바 있으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그간 허위로 세금 신고 하는 등 세법 질서가 문란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승인절차, 실시간 상호 대사 기능 등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할 방침을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대납세자, 자카르타, 반튼, 자바, 발리에서 본 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한인 기업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대상 25만개사 가운데 등록을 마친 곳은 7만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기업이 미등록인 셈이다.

외국계 기업은 물론 로컬 기업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거래 관행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매입처 확보 등 경영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절차가 각 세무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무면에서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세수는 377조 루피아에 그쳤다.



법인세 상습적으로 미루던 한국인 사장 구속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2일 법인세를 체납한 한국인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구속된 일은 올해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가 체납한 금액은 20억 루피아 남짓.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9일 구속 허가를 발부, 세무 당국이 18일 한국인 사장을 구속했다. 비즈니스 인 도네시아가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속된 체납자의 이름은 HJH로 화학 원료 판매 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특별주 세무서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의 구속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납부하면 구속 처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 예금 등 자산을 동결 조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법인,개인 총 24명의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570억 루피아에 달한다. 재무부는 그중 17명에 대해 구속 허가서를 발부해 1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체납자 가운데 8명은 이미 세금을 냈지만, 5명은 여전히 체납한 상태로 남아있다.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악의적인 고액체납자가 호의호식하며 산다면 조세정의는 무너지고, 더욱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고액 상습 체납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다. 선진국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50억 루피아 이상일 때만 가능?

바수끼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사진)은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2,400만 원)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은 25일 밝혔다.

공공주택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향으로 재무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수끼 공공주택부 장관은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50억 루피아로 비교적 높게 설정하면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대상 아파트에는 5%의 사치세를 부과하고, 외국인 1명당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관 1996년 제 41호에는 현지 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형태만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니정부, 최저임금 매년 10~11% 인상 타당

하니프 다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달 3일 자카르타 스나얀의 국회(DPR)에서 열린 제9위원회와의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하니프 노동장관은 앞으로 정책 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4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0~11%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과 함께 임금인상폭을 예측하여 노사분규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현 지언론은 전했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노동생산성,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인상폭을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및 노사간에 합의된 최저임금을 4~5년 동안 고정함으로써 매년 반복되어 온 노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최저임금의 지표가 되는 수도 자카르타의 올해 최저임금은 월 270만루피아이다.

임금인상과 업체들의 경영악화, 해결책은?

최근 자카르타 인근에 집중된 섬유와 봉제, 신발 등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업체들은 3년 전부터 수도권 최저임금이 연평균 20%씩 상승하면서 자바 섬 서부와 중부, 동부 등지로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테 수드라자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회장은 “중부 자바주의 최저임금은 수도권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며, “최근 17개 섬유·봉제 업체가 중부 자바주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에디 위자나르코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회장은 “수도권 최저임금이 270만~290만 루피아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이 절반 수준인 자바 섬 중부와 동부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집약산업 부문 투자자들은 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한 비과세와 감세 혜택 등 정부의 조세특별조치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기대를 걸고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봉제와 신발을 필두로 전자, 제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약 100만 명의 고용창출을 실현하고 있다.



PHOTO NEWS



5년 뒤, 자동차 연간 250만대 생산 목표

수디르만 마만 루스디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협회(GAIKINDO)회장(가운데)과 이 구스띠 뿌뚜 수르야위라완 인도네시아 산업부 금속·기계·교통수단·전자산업국장(왼쪽에서 두번째), 에디 뿌뜨라 이라와디 경제조정부 산업거래협력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수이하실 나자라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오른쪽) 등은 22일, 자카르타 스나안 소재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 ‘자동차 생산 250만 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GAIKINDO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판매량(국내·수출) 2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아딧야(Aditya)



르바란 물가를 잡겠다는 인니정부

서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꼬망기산 시장에서 상인이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피트리 기간을 맞아 치솟고 있는 식재료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을 통한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스타프 카뮈보트, 〈비오는 날, 파리 거리〉



작가: Gustave Caillebotte (1848~1894)

작품: 비오는 날, 파리 거리 (Paris Street; Rainy Day, 1877)

oil on canvas, 212.1x276.2cm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길은 ‘사람들’을 만든다.

<비오는 날, 파리 거리> 어릴 적 보았던 ‘주말의 평화’ 어느 한 장면이 캡처된 듯한 그림. 19세기말 어떤 미술 사조에 넣어도 낯설은 화가 구스타프 카유보트. 주류이던 아카데미한 그림에 넣기엔 주제가 너무 저속하고(당시 비평가들의 평), 인상파라 하기엔 너무 엄밀하고 정교하며(에밀 졸라의 평), 밀레나 쿠르베 같은 사실주의라 하기엔 어떠한 정치, 사회, 도덕적인 메시지도 없다. 그의 그림은 오히려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포토리얼리즘에 가까운 분위기다.

상류층 빠리지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상속자가 된 카유보트는 인상과 그림의 가치를 알아본 최초의 후원자였다. 그는 마네, 모네, 드가, 르노와르, 세잔, 피사로 등의 작품 수집하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모네의 권유로 붓을 잡게 되면서 그는 인상파의 색감과 사실주의 붓터치로 담담하게 일상을 그렸다. 법률을 공부한 공학도답게 도로, 다리, 목조물, 요트 등을 정밀하게 그렸으며, 대개의 인상파 화가들과는 달리 화사하고 아름다운 여인들보다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거나 동적인 남자들을 많이 그렸다.

무심히 찍은 한 장의 스냅사진 같은 이 그림. 건물들은 원근법의 텍스트가 될 만큼 그려졌으며 화면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녹색 가로등과 정확히 반만 보이는 남자의 뒷모습. 우연을 가장한 치밀함이 아니라면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구도 덕분에 오래된 스냅사진처럼 보인다.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오가는 그림의 주제는 “길과 시선(視線)”이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의 주도하에 좁고 지저분한 파리의 골목길은 확 트인 사통팔달의 ‘오스만대로’로 거듭난다. 대로 양쪽에는 새롭고 화려하며 이국적인 가게들이 들어서고, 오후면 맵시를 낸 사람들이 산책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벨 에포크’라 불리는 ‘아름다운 시대’이다. 거니는 사람들을 보고 보이기도 하면서 의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디자이너가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파리는 패션의 도시가 되었다고 하니 어디 옷차림뿐이라. 다른 이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보게 되고 준비한 노천카페에서 밤새 대화를 나누면서 철학도 꽃 피웠을 것이다.

그렇게 <비오는 날, 파리 거리>에선 시선이 보인다. 저마다 우산을 들고 있어서 시야가 불편함에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은 길 저편을 보고 있고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남자는 앞의 두 사람을 보면서 걷고 있다. 자주 그렸던 발코니나 다리의 남자들 그림에서도 시선은 중요하다. 그림에서 보이는 어떠한 선 보다도 시선이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자신의 미학이나 메시지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어느 화가보다도 힘있고 매혹적인 그림을 그렸으며, 인상파 최대의 후원자가 되어 근대 미술사에서 ‘대로(大路)’의 역할을 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길지 않은 삶을 살다간 딜레탕트한 멋진 남자.

처음엔 이쪽으로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에서 카유보트를 보았는데
지금은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오스만대로에서 카유보트를 보게된다.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최 근의 인도네시아 풍경은 저녁노을처럼 처연하고 때로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적도의 햇살조차 가려버릴 것 같은 경제적인 불황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느낌이랄까. 멈출 줄 모르는 루피아의 약세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 외국인인 우리의 처지보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생계가 더욱 걱정되는 요즈음이다. 시간 때와 상관없이 막히는 도로 곳곳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에 때때로 타국에서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는 요인이다.

얼마 전부터 해마다 빨라지고 있는 최대의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월을 알리는 금식일이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학생들의 여름방학과 라마단휴일과 맞물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국을 방문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하필 이 무렵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라는 전염병은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마음이 무겁지만 계절이 멈추어 있지 않듯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진리를 믿으며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는다.

오늘 한국뉴스를 보니 메르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소식도 들린다.

어느 정도 큰 불길은 잡힌 것 같은데 아직도 완치된 메르스 환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우리 교민들의 심정은 착잡한 것만은 사실이다.

여름방학과 라마단 휴일이 겹쳐 한국을 방문하면서 건강검진이다 뭐다 병원을 찾을 일이 많지만 병원을 가는 일이 어느 때와는 달리 조심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이번 메르스 환자들 대부분이 병원내의 감염자 이다보니 무심코 병원을 찾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 같은 우려가 앞서기 때

문이다. 삼성병원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위치나 환경조건으로 볼 때 신뢰가 깊었던 병원이다. 그런데 어떤 곳보다 제일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재외국민 이다보니 해외에서 한국엘 오게 되면 이왕이면 명성 있는 큰 병원을 찾게 된다. 매년 체크하는 정기건강검진도 대형병원 시스템을 이용해왔기에 올해는 정기건강검진 계획을 내년으로 미뤄볼 생각이다. 이번 메르스 환자 대부분이 많은 환자들이 몰려있는 큰 병원 내에서 전염되었고 그 감염속도 또한 심각했다

한국에 머물 때면 그동안 치료를 미루어 두었던 조그만 지병이나 감기만 걸려도 무조건 큰 병원을 찾았다. 병원만가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었던 그러한 인식을 이제는 조금씩 바꿔야 할 때가 되었나보다.

대형병원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한 장소가 된 것 같아 쓴 웃음이 나온다.

스스로 자가 치료법이라도 개발해야 되려나??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들도 많다 보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삼성병원에서 다른 지병으로 치료중이거나 입원한 환자들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어떤 암 환자도 주치의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격리된 탓에 항암치료가 중단되었고 의사들이 모자라 외래와 수술 등 병원진료 대부분이 잠정 중단 되었다고 한다.

비록 삼성병원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병원에 다니던 만성질환 환자들도 평소보다 30%이상이 병원을 찾는 일이 줄었다는 뉴스를 본다. 이번 라마단휴일에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아주 급한 중증이 아니면 이시기에는 병원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어찌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싶다. 오늘 뉴스를 보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방송에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도 나온다. 메르스 환자는 삼성병원 그룹차원에서 끝까지 치료를 해주겠다는 약속도 한다. 아, 정말 이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작년 이맘 즈음에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이제야 조금씩 치유되고 있건만, 또 다시 이런 불운을 겪어야 하는 고국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모든 일은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국민의 심기를 어둡게 하는 원망스러운 바이러스인 메르스가 하루빨리 저 멀리 물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한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니 기사분이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다. 메르스 때문에 모든 경제가 마비되었다며 울상을 지으면서도 농담 한마디를 건넨다.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반년이나 앞당겨 찾아왔죠? 나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어 기사 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메르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발음하는 어원이 비슷하다. 그분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를 6월에 찾아온 크리스마스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 바이러스 또한 즐겁게 맞이해서 잘 극복하고 기쁘게 보내주자는 기사분의 말대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메르스 환자들이 썩썩하게 잘 극복해서 맑고 환한 세상으로 다시 건강하게 나와 주길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택시기사분의 긍정심이 밝은 세상을 열어주는 희망이 되는 것만 같다. 그 밝은 생각이 잠시라도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달리는 차창 밖을 바라본다. 6월의 신록 속으로 문득 타임머신처럼 지나온 시절이 스쳐간다. 희망의 상징인 네잎 클로버에 대해 애착을 가지던 때가 있었다.

어느 해 6월이던가, 네잎 클로버를 찾아다니며 행운이 온다는 전설을 굳게 믿었다. 그 시절은 삶이 힘들고 버거워도 항상 즐겁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게 삶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출구의 밝은 빛도 바라보고 감격에 젖었던 시절을 회상해 본다. 지금도 나는 네잎 클로버의 전설을 굳게 믿는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다시 네잎 클로버를 찾아보려고 한다.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

리나라의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인 불황이 네잎 클로버의 전설처럼 꼭 필요한 행운이기에 너무나도 절실하다.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원숙한 계절이 되어 밝고 기운찬 행운이 꼭 찾아와 주리라 믿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운의 의미도 광범위하고 더 넓고 큰 소망으로 다가 오는 것 같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보니 정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다 된 걸까? 나라가 걱정되는 마음이 가족을 걱정하는 그 마음과 다를 바 없으니 말이다. 어떠한 절망과 고난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없이 패배하고 만다. 우리나라를 힘들고 어둡게 했던 메르스 바이러스도 이제는 서서히 그 위력을 잃고 있다. 반드시 지나간다.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가리라는 그 당연한 진리 앞에 메르스 바이러스는 벌써 저만치 손을 흔들며 꼬리를 감추고 있다.





유행과 복고열풍을 쫓는 심리 문화복제자 밈(meme)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사회현상의 한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복고나 유행이 사회적 현상으로 소비되는 심리는 무엇일까? (지난 호에 이어)

도킨스 이후 또 20년이 흐른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대학의 신경심리학자인 자코모 리졸라티(Giacomo Rizzolatti) 교수팀은 또 하나의 개념을 제시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 감정을 머릿속에서 추측하고 모방하며 그로 인해 인간의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하는데, 그는 이를 거울뉴런(mirror neurons)이라 칭했다.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의 두뇌는 거의 현재와 같은 용량이었지만, 인류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며 언어를 창조하고 더 나아가 문명을 잉태하게 된 것은 불과 4~5만 년 전으로, 이는 공교롭게도 거울뉴런의 출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거울뉴런 전에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을 바탕으로, 인지적 기제를 통해 습득한 (주로 시각적) 정보는 복잡한 추론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거울뉴런은 시각적

정보를 곧바로 운동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것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 공감하도록 만드는 일등공신이라 할 만하다.

북극곰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두꺼운 털을 갖기 위해서는 수만 년의 진화과정이 필요했겠지만, 이누이트족은 반나절 만에 아버지로부터 털가죽 옷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바로 모방의 힘이다. 반면 공감은 모방과는 달리 정서적 과정을 수반하므로 감정중추인 변연계와 거울뉴런이 섬(insula)을 매개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모방하면서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 낸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이야말로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 거울뉴런의 최대 걸작이 아닐까? 거울뉴런 역시 문화 복제자로서의 밈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것이다.

밈(meme)은 왜 전파되는가?

단순한 행동에서부터 복잡한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람을 통해 모방되고 전염되며 복제되는 이유는 뭘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학자로 평가받는 영국의 심리학자 수전 블랙모어(Susan Blackmore)는 그의 역작인 [밈]에서 어떤 밈은 전파에 성공하는 반면 어떤 밈은 실패하는 이유를 모방자이자 선택자인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기능하는가?’ 라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더 깊숙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외부자극을 받아들여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체계에 의해 쉽게 수용되어야 하며, 수용된 정보는 기억 속에 충분히 잘 저장되고 인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쉽게 모방을 통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밈의 실체가 명백하면 할수록, 기억이 잘되면 잘 될수록 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방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밈은 모방될 수 없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어떤 이야기는 빠른 시일 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어떤 소문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는 이유다. 최근 몇몇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성매매 루머가 SNS를 통해 삽시간에 뜨겁게 달구고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한 사람으로부터 복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모방’을 통해 쉽고 빠르게 번진다. 이 때 중요한 사실은 복제가 될 때마다 살짝 살짝 변이가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처음 시작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소문이 양산되기도 한다. 어릴 적 한번쯤 누구나 해봤던 ‘이야기 전달 게임’과 유사하달까. 다윈이 언급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과정처럼 밈 역시 오로지 자신의 복제라는 이기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이루어진다.

‘밈’의 이런 특성 때문에 진화생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통다윈주의자들은 밈을 생물학적 이

점의 문제로 간주하며 그 존재에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도킨스가 일갈했듯이 이들은 생물학적 진화 개념을 분석할 때 중국에는 ‘생물학적 이점’으로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밈’ 역시 유전자를 위해 행동한다고 믿음으로써 제2의 복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는다. 특히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일관되게도 우리의 행동, 신념, 성향, 관습은 하나같이 홍적세의 수렵채집의 생활방식에서 직면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에의 적응의 결과이며, 문화 전이나 유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생물학적 이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고 있다.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는 문화적 진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밈’이야말로 무의미한 비유라고 단언한다.

반면 도킨스, 다니엘 데닛(Daniel C. Dennett), 수전 블랙모어 등은 밈을 통한 사람의 모방 능력이 제2의 복제자를 탄생시켰고, 이것이야말로 밈의 진화라는 의미에서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종의 이득을 위해서도, 개체의 이득을 위해서도, 유전자의 이득을 위해서도 행동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행동하지 않는 복제자 ‘밈’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전히 유전적 진화만을 고집하는 입장에서는 밈이라는 문화적 진화 자체가 낯선 상황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생물학적 진화와 함께 문화적 진화도 함께 다룰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밈(meme)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사’ 즉 [응답하라 1994]에 대해 30~40대가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이유는 뭘까? 드라마 또한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유력한 문화 콘텐츠다. 따라서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 높은 시청률을 보인다는 의미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는 반증이다. 옛되고 가냘픈 여배우의 입에서 시원시원한 여수 사투리를 토해내는 장면에서 다소 생경하거나

혹은 진한 고향사투리에 반가움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딱히 학연, 지연도 아니라면 90년대 대학가 하숙집을 모티브로 떠오르는 야릇한 추억(?) 때문일 수도 있겠다. 어찌됐던 그 당시 품었던 감성적 가치를 사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복고풍 콘텐츠로는 안성맞춤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응사’에서의 ‘복고’의 실제 역시 밈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밈은 무엇을 전달하려 했던 것일까? 결과적으로 ‘응사’의 유행은 문화 복제자 밈의 역할이 크다. 여기서 밈은 이기적 유전자처럼 울거나 웃으며 감동받는 시청자의 이득을 위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응사’에 응축된 콘텐츠 그 자체다. 복제되기에 유리한 특성, 즉 밈의 단위가 유행을 추동했으며, 시청자의 호불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밈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행의 이유다. 응사의 모티브인 ‘하숙집’은 이 시대를 살았던 시청자들에게 수많은 문화적 변이를 만들어주었으며, 이들 변이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써 진화과정을 걸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인들에게 ‘말춤’이라는 춤의 변이를 전달함으로써 자발적인 복제자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문화 복제자 밈은 복고처럼 기존의 실체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끈 후 실제 상품화한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데 이경규의 ‘꼬꼬면’이 대표적이다. ‘아빠 어디가’에서 윤후의 ‘짜빠구리’ 역시 인터넷에 조리법이 나돌 정도로 인기다. 방송 후 폭발적인 입소문을 만든 문화 복제자 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 틀에 이미 익숙해져서 심적 편안함을 갈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편안함을 거부하며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생경함과 낯설이야말로 강력한 생명력을 갖는다. 여기에 더해서 꼬꼬면은 멀거리에서, 짜

빠구리는 새로운 부자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변이가 무궁무진하다. 변이야말로 복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몇 시간씩 걸려 쓴 편지를 이삼일 혹은 일주일쯤 기다려 받아봄으로써 맘을 펴뜨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 몇 분만에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펴뜨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편지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복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텔레비전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은 책이나 신문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소통에 대한 맘의 경쟁력은 텔레비전이 더 뛰어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하나의 맘만이 경쟁에서 성공하여 생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네트워크 체계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수히 많은 복사물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밈이 주도하는 문화 복제자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인터넷은 비용과 저장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문화콘텐츠 복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는 가상공간처럼 문화적 변이도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처럼 손쉬운 복제와 대량의 복제로 인해 매우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양산할 것이다.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현실로 실현될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지금의 문화 복제자는 인간을 속주로 한 반면 미래에는 로봇, 사이버 공간, 아바타 등을 속주로 전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변이가 공존할 것이며, 인간에게 이로울지 해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유전자 진화는 DNA라는 종착점이 있지만 문화적 관점에서의 밈의 진화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범상규 건국대교수)



순다끌라빠 항의 모니터 해양감독 전망대 (Menara Syahbandar)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순다끌라빠 전망대로 알려진 Menara Syahbandar는 바타비아 시절에는 해양을 감독하는 항무관(港務官)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176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전망대는 순다 끌라빠 항에 입출항 하는 배의 동태를 모니터했다. 또한 해양과 토지의 안전을 감독하고 지키기도 했으며, 기상에 대한 관찰과 관세 초소로도 사용되었다. 이 전망대 아래 석창살 철문이 있는 곳은 법률을 위반한 선원을 감금한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군인들의 동태도 살폈는데 전망대 바깥에 있는 큰 대포를 보면 그 역할이 짐작이 간다.

지금의 역사 감옥 박물관까지 8km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때는 네덜란드의 Frederik Hendrik 요새가 있었던 Istiqlal 이슬람 대사원

(현)까지도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주로 군부대 이동 시 사용되었다고 한다. Menara Syahbandar 정상에 길이 10m, 넓이 6m, 높이가 18m인 사방을 감독할 수 있는 네 개의 창문을 만들었다. 한 창은 항구를, 또 한 창은 암스테르담 게이트를 지나 보이는 파타힐라 광장(구 시청 광장)을, 다른 창은 루아르 바땅 마을과 빠사르 이간을 향한다. 그 외에도 전망대 근처에는 3채의 건물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전망대 앞쪽에는 항해 창고가, 전망대 계단 가까운 쪽에는 무역 사무소, 옆에는 세관청이 있다. 참고로 이곳은 1645년에 세운 Bastion Culemborg 요새가 있었던 곳으로 바타비아 성벽에 속해 있었다. 바다로 통하는 바타비아 입구인 Culemborg 요새는 Antonio van

Diemen 총독에 의해 건설되었다. Daendels 총독이 바타비아를 다스릴 때(1808년-1811년) 이 요새를 허물었고, 그 뒤 1839년에 동인도회사 조선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순다플라빠 전망대로 알려진 이 전망대가 만들어졌다. 1926년부터 1967까지는 순다플라빠 항구(Pasar Ikan 항구라고도 함)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1967년부터 순다플라빠 항구에 사무실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이 곳은 항구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유적지로 남게 되었다.

Syahbandar 전망대에서 중국어로 적혀 있는 2개의 비문이 발견되었다. 즉 <측정 및 계량 사무소: 바타비아의 0킬로미터>라고 적혀 있는 비문과 <바타비아로 온 중국 무역상들이 승하(昇遐)한 청나라의 푸이 황제를 기념한다.>라고 적혀 있는 비문이다. 첫 번째 비문은 이 전망대가 바타비아 측정의 출발점(기준)인 것을, 두 번째 비문은 당시 바타비아와 중국 간의 무역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단다.

자카르타 450년 주년을 기념하면서 1977년 7월 7일 해양 박물관 준공식을 가졌다. 그때 전망

대 앞에 비문을 세웠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오늘의 번영을 위해 한돌 한돌 초석을 쌓은 지난날의 선열들에게 자카르타 450년을 기념하며 이 비문을 이곳에 세워 받칩니다.> 1977년 7월 현재와 자카르타 특별구 주지사 Ali Sadikin Jendral TNI (Marinir) Letnan 역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동하는 자카르타. 후회 없는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멀면서 가까워지는 파도 소리에 식민시절 전망대 밑 감옥에 갇힌 그들은 파도의 原始를 그리고 있었을까. 전망대 창에 매달린 푸른 잎 하나가 일렁이는 물결처럼 파도치며 다가올 때가 있다. ‘아, 당신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망대가 나에게 베풀어 준 호의는 심연의 바닥에 가라앉은 그들의 고독을 위해 전망대 위에서 바다내음을 실컷 마시게 해 주는 것이다. 역사의 파도와 함께.

Jl. Pasar Ikan No. 1, Jakarta Utara
(021 6693406)
개관: 화~일요일 9시~16시
해양박물관 입장료에 포함 5.000 (성인),
2.000 (어린이)



햇갈리는 인도네시아 비자 꼼꼼히 살펴보기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관광이든 취업이든 다른 나라에 갈 때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비자(사증) 취득이다. 순수한 관광에도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체류비자는 통상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된다. 아래의 인도네시아 비자 관련 규정은 자카르타에 본사가 있는 우리컨설팅(대표 김민규)의 자문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다. 외국인이 적절한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과 이민법을 위반하게 돼 구금과 벌금을 처벌받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

비자는 방문 기간, 목적, 초청자(스폰서)에 따라 나뉜다. 인도네시아에 단기간 방문할 때는 무비자 입국과 도착비자(VOA)를 활용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 목적으로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은 자카르타, 발리, 바탐 등지의 국제공항 5개와 국제항구 4개다.

도착비자(VOA)는 친지방문, 관공서 방문, 간단한 물건 구입, 단순 미팅, 학교 방문 등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30일 더 체류할 수 있다. 도착비자는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 발급하며,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수수료는 35달러이다.

무비자와 도착비자(VOA)로 입국해서 기업을 방문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관광 목적이라도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친지 방문의 경우에 도착비자(VOA)를 받는 게 좋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동포안내문을 통해 비즈니스 목적인데 도착비자로 입국, 사업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컴퓨터

를 사용하다가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에 1개월 이상 머물거나 1개월이 못되더라도 비즈니스, 사회문화활동, 공연, 취재 등 특정목적에 위해 입국할 때는 상용비자(VKSB 또는 VKBP), 체류비자(KITAS), 은퇴비자(VISA Lansia), 투자비자(VISA Investasi) 등을 활용해야 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용비자(VKSB 또는 VKBP)를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도착비자(VOA)를 받아 입국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단수상용비자 VKSB211(Visa Kunjungan Sosial Budaya)와 복수상용비자 VKBP212(Visa Kunjungan Beberapa kali Perjalanan)는 입국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사회문화, 학생 등으로 구분되며 그에 맞는 스폰서를 필요로 한다.

단수상용비자(VKSB211)는 체류기간이 60일이며, 30일씩 4회 연장이 가능해 총 180일 간 체류할 수 있지만 출국할 경우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말소된다.

복수상용비자(VKBP212)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기간 내 출입국이 자유롭다. 단 1회 입국시 최대 체류기간이 60일이므로 기간 내 재출국해야 한다. 잦은 출장자의 경우 적합하다.

기업이 스폰서가 되는 VKSB211은 통상 비즈니스비자라고 불리며 회의와 상담, 사업장 방문, 시장조사, 기술적인 부문의 자문, 마케팅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스폰서가 되는 VKSB211은 통상 사회문화비자라고 불리며, 문화활동, 공연, 학교 강의, 취재 등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취업해 보수를 받고 일을 할 경우에 체류비자(KITAS)와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동반가족체류비자(KITAS)가 나오며, 기업이 스폰서가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를 위한 체류비자(KITAS)를 연령 25세에서 55세 사이, 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인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

체류비자는 단기체류비자(KITAS)와 장기체류비자(KITAP)가 있다. 장기체류비자(KITAP)는 체류기간이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장기체류비자(KITAP) 취득가능 조건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써 정관에 등재된 경영진(이사, 감사)에 한하며 한 법인에서 단기체류비자(KITAS)를 취득하여 말소 없이 4년이상 연장한 경우 장기체류비자(KITAP)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적인과 결혼하였을 경우 배우자로서 장기체류비자(KITAP)을 취득할 수 있지만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할 수 없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한다.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는 인도네시아에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허가로서 체류비자(KITAS)와 함께 취득하여야 한다. 한달 100달러씩 외국인력근로허가(IMTA) 유효기간에 맞추어 근로부담금(DPKK)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경우, 한국인 기술자가 와서 감독만 하면 VKSB211로 충분하지만 한국인기술자가 직접 기계설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허가(IMTA)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단속시 시비가 걸릴 요지가 큼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체류비자(KITAS)와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소지할 것을 권한다.

공연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여할 때 해당 기관의 스폰서나 추천서를 받아 취득한다.

가수나 연주자가 공연을 위해 입국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일반인과 동일한 단기체류비자(KITAS)비자이고 스폰서가 인도네시아 내 재학 중인 학교가 된다. 체류기간은 학교에서 스폰서를 하는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1회 취득 시 최고 2년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는 진행할 수 없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선교사,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은 체류비자(KITAS)와 함께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하지만 근로부담금(DPKK)을 면제해준다.

대학교수가 조사나 연수로 오면 VKSB211로 가능하지만 보수를 받고 강의를 하려면 체류비자(KITAS)와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해야 한다.

은퇴비자는 55세 이상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출국하지 않고 1년씩 총 5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은퇴비자로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사례별 일문일답>

▶ 관광을 위한 방문일 경우

--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무비자, 30일 이상이면 도착비자를 이용해야 한다.

▶ 가족 방문일 경우

-- 30일 이내의 단기이면 무비자, 30일 이상이면 도착비자를 이용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숙소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자카르타와 발리 지역에서 취업연령대의 외국인이 친지방문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거주지역에 거주하다 이민국에 적발되면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비자보다 활동범위가 넓은 도착비자(VOA)가 유리하다.

▶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경우

-- VKSB211을 활용하면 공장을 방문해서 자문만 가능하고 직접 기계를 설치할 수 없다. 출장자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MOU와 출장명령서가 필요하다. 또 관할 이민국과 파출소에 미리 출장자 신고를 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하게 외국인이 직접 기계설치를 하려면 외국인근로허가(IMTA)를 취득해야 한다.

지난 6월에 한국인 노동자 8명이 도착비자(VOA)로 입국해 상가 실내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이민국에 적발돼 추방된 사례가 있다.

▶ 전시회에서 상품 소개나 시연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 단기간 단순 홍보활동은 공

향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 가능하지만 실제 이민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시비의 소지를 없애려면 VKSB211를 획득해야 한다. 또 메이크업 시연장에서 모델을 할 경우 관광부 추천서를 받아서 공항 입국장에서 공연비자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5월에 가수 채은정 씨와 메이크업아티스트 윤모 씨가 도착비자로 입국해 메이크업쇼를 하려다 이민국에 구금된 사건이 있었다.

▶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의 경우

— 무료공연을 하려면 VKSB211를 받아야 하고, 유료공연을 하려면 관광부 추천서와 근로허가(IMTA)가 포함된 공연비자를 받아야 한다.

▶ 기타 VKSB211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 △기자의 취재 △시장조사나 업체 관계자와 상담 △어학연수 △연구활동

<비자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 규정과 실제의 차이: 정부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집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 규정과 절차를 몰라서 진행이 안 된다. 민원인이나 대행업체가 관련 규정과 서류양식까지 제공하면서 공무원들을 안내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많다.

▶ DPKK 횡령 피해: 근로부담금(DPKK)을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대행사에는 영수증을 주는 편이 안전하다. 현지 대행사가 근로부담금(DPKK)을 횡령하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서류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찌카랑 지역에서 한국업체 6개가 같은 현지 대행사에 비자 수속을 맡겼다가 근로부담금(DPKK) 횡령 피해를 입었다.

▶ KITAS 유효기간: 신규체류비자(KITAS)의 유효기간은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노동부 비자허가(TA-01)의 유효기간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국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거나 인도네시아 입국을 늦게 한 경우 체류비자(KITAS)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2~3개월분의 근로부담금(DPKK)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자 유효기간: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체류기간을 어기면 60일까지는 1일 30만 루피아의 벌금을 물고, 60일이 넘으면 바로 추방되어 6개월 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 KITAS 원본 항상 소지: 체류에 문제 없는 외국인일지라도 당국 단속 시 원본이 없으면 연행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 반드시 체류비자(KITAS)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또 거주지나 사업장에 여권, 체류비자(KITAS), 외국인력근로허가(IMTA) 등 개인과 회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KITAS 분실 대비: 오피스빌딩이나 업체를 방문할 때 보안 담당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가급적이면 경찰서신고서인 STM(Surat Tanda Melapor)이나 운전면허증(SIM)을 맡기면 분실 등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KITAS를 분실할 경우 KITAS 신규 수속 비용보다 재발급 비용이 더 들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단속에 당황하지 말 것: 인도네시아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을 통상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단속반은 '공무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무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지소 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정당한 단속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속을 사칭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광복 70년 기념주화



기념주화 3종을 나란히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
되는 구도로 우리나라 기념주화에
최초로 적용함

- 앞면** • 앞면에는 우리나라 전통 대문인 활짝 열려있는 모습을 새겨 넣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
• 대문 사이로 태양이 한반도를 휘돌아 나가고 그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하여 '다시 쫓은 빛'이라는
광복의 의미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국운 융성에 대한 염원을 형상화
• 기념 대상인 '광복 70년' 과 정부의 광복 70년 기념사업 주제어인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을 공통으로 삽입
- 뒷면** • 정부의 광복 70년 기념사업 emblem과 영문 주제어인 'GREAT JOURNEY STEPPING FORWARD' 를 공통으로 삽입

접수 안내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전화접수

- 문의처 :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단
- 전 화 : +82 42 870 1179
- 이메일 : alsehdrl@komsco.com

• 대금결제

- 주문신청 후 계좌 입금 (접수 시 안내)

• 수령방법

- 국제특송사를 통해 운송되며, 운송비는 구매자 부담임

• 판매가격

타입	구 성	가 격
1종 단품	A 은화 I (액면가 : 50,000원)	USD 63
	B 은화 II (액면가 : 30,000원)	USD 43
	C 황동화 (액면가 : 10,000원)	USD 16
3종 세트	D 은화 I, 은화 II, 황동화	USD 120

• 규격

* Proof : 유 · 무표 무표형 주화 UNC : 사용된 흔적이 없는 주화

구 분	액 면	모 양	재 질(%)	지름(mm)	중 량(g)	표면상태
은화 I	50,000원	원형	은 99.9	40	31.10	Proof
은화 II	30,000원	원형	은 99.9	33	15.55	Proof
황동화	10,000원	원형	구리 65, 아연 35	33	16.00	UNC



즈빠라 스마랑 3박4일 여행기



박상규 즈빠라 한인회장 및
박조유 조각가님과 함께
까르띠니 해변에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안 섹션 회장 이수진

인도네시아에서 즈빠라는 나무 집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곳에는 나무 전문가와 가구 공장을 하는 한국인은 50세대 정도로 추산된다. 지금 즈빠라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전문가로 헤리티지 코리아안섹션에서 몇 년전에 초청하여 강연을 했던 박조유 조각가님이 잠시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조각가님은 지금까지 8개월째 즈빠라에서 머무시며, 나무를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던 조각가님이 자카르타에 작품 전시회 준비 팝플렛 제작 일로 잠시 나오셨던 차에, 조각가님의 절친한 친구로 발리에서 사는 인도네시아의 사진작가, 찬드라님이 스마랑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박조유 조각가님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스마랑행을 재촉하셨다. 이번에는 나도 따라 나서며 이종숙 전 헤리티지 회장님과 함께 가기로 했다.

스마랑을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차를 택하기로 했다. 6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리가 탄 기차는 아침 7시 정각에 출

발했다. 기차는 평일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좌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득찼다. 우리 셋은 따로 떨어져서 띄엄 띄엄 앉아 있어야 했다. 생각보다 기차는 깨끗했지만 좌우로 많이 흔들거렸다. 얼마만에 해보는 기차여행인가?

차창 밖에 보이는 평야는 대부분이 논이었다. 드넓은 자바 평원이다. 기차가 다리를 지날 때면 웬지 모를 낭만에 젖어들곤 한다. 주식을 쌀로 삼고 있는 자바인들의 젓줄이 바로 이 평야를 흐르는 강이겠구나! 곡식이 익어 누런 들판의 풍경은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는 바람없는 자바의 곡식창고의 현주소이다. 지나가면서 이제 막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몇몇 마을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도 눈에 들어왔다. 70년대의 한국의 농촌과 같은 분위기였다.

스마랑은 인도네시아의 4대 도시라고 한다. 자카르타가 수도로서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수라바야가 2대 도시이고 3대 도시는 메단이며 그 다음이 스마랑이다. 요즘은 봉제 업체들이 스마랑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스마랑에서 찬드라넴과 만나서 점심을 먹고 우리가 바로 간 곳은 Lawang Sewu 라는 곳이었다. 가이드가 한명이 따라 다니며 설명을 해주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시기였던 1907년에 지어진 건물로 현재는 기차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화장실 세면대에 AMSTERDAM이라고 또렷한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화장실 내부의 장식들이 유럽을 건너 이곳까지 왔음을 알려주었다. 이곳의 또다른 이름은 천개 문을 가진 집 또는 귀신나오는 집이었다. 그만큼 피비린내나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 옛날의 역사는 아랑곳없고 지금은 평온한 박물관이었다. 아치형으로 된 이쁜 문과 벽을 감상하다 보니 스마랑의 역사가 눈에 선 해 지는 것 같았다.

박조유 조각가님은 마음이 급해지셔서 우리에게 즈빠라로 가는 걸음을 재촉하셨다.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즈빠라에 도착하니 5시반이었다. 즈빠라는 작은 도시인데 나무와 가구로 특화되어 있는 독특한 곳이었다. 지나가는 길에 쉽게 큰 목재들이 덩굴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즈빠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간 곳은 박조유조각가님의 작업실이었다. 박조유조각가님은 즈빠라 조각센터 마을의 한가운데에 작은 작업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셨다. 길 전체와 한 마을이 작고 큰 나무나 목각 작품으로 가득찬 가게들이 늘어선 곳이었다. 몸과 마음 뿐 만아니라 정신이 통일되는 분위기가 났다. 나무 집산지에서도 가장 나무가 많은 곳이라 이런 곳이 제대로된 나무쟁이가 작업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조각가님의 작업실에는 나무부스러기가 수북히 쌓여있었고 나무 판들이 일렬로 잘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 한쪽 벽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무 원목들이 조각가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벽에 기대어 쌓여 있었다.

조각가님은 마침 길이가3미터나 되는 아주 큰 높이의 나무통을 구해서 작품을 하고 계셨다. 아마도 그 나무는 600년 이상 자라서 오늘의 크기로 되었다고 한다. 한달이 걸려서 제대로된 작품으로 된다고 한다. 몇몇 작품이 실내 공간에 있었는데,

높이가 2미터 가량된 긴 나무작품은 하나 하나 끝을 사용하여 조각에 장식을 내어 표면이 매끄럽지는 않았으나 아주 정성과 손이 많이 간 것임을 금방알 수 있었다. 실내에 있던 작품을 초록 배경에서 사진을 찍기위해 마당으로 들고 나가서 세워놓자 작품은 더욱 더 아름답게 빛났다. 신기한 조각작품에 우리는 넋이 빠진 듯했다.

즈빠라 한인회 사무실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박상규 한인회장님과 조영성 총무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 이층은 한인회 사무실로 쓰고 아랫층은 밀알한글학교 교실로 사용하고 계셨다. 즈빠라 한인회 사무실에서도 토요일마다 지역 주민을 위해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 몫을 하고 있는 즈빠라 한인회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져서 역시 먼 곳에서도 서로 돕는 한인사회로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나는 즈빠라 한인회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어서 가구공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박상규 한인회장님의 공장을 방문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이 네개가 있고 창고가 양쪽으로 몇개나 있는 큰 가구공장이었다. 창고 한 켠에는 박조유 조각가님의 작품들이 26개가 늘어서 있었다. 작품을 보니 반가웠다. 조각가님의 작품은 나무의 색을 한껏 살리면서 결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다. 나무의 회절무늬가 아주 돋보였다. 조각가님의 작품을 보관을 해주는 데 참 감사함을 느꼈다.



즈빠라는 바다가 바로 인접해있는 해안도시이다. 바닷가쪽으로 까르띠니 해안가라는 공원으로 조성해놓았다. 해안에 무슨 특색이 있길래 까르띠니의 이름을 붙여놓았는지 의아했다. 해안은 서쪽에서 해변으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일몰을 선사해주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니 날씨가 좋아서 해가 바다로 쏙 들어가는 신기한 광경을 바다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자카르타에서는 늘 구름이 많고 비가 와서 일몰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 즈빠라는 날씨가 아주 맑고 쾌청하여 깨끗한 일몰이 가능했다.

밤이 되자 즈빠라의 밤하늘은 별과 달이 초롱초롱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너무나 맑을 수가 없었다. 공해가 없으니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아름다울수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전혀 아름다운 별자리를 본적이 없었을 거다. 우리가 머문 날은 초승달이 큰별과 함께 떠서 나무 옆에 걸려있었는데, 참으로 잊지못할 멋진 밤풍경이었다.

까르띠니 박물관에 잠시 들러보았다. 1876~190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아간 까르띠니 여

사의 집이 바로 즈빠라에 있었던 것이다. 평소 까르띠니가 어려서 타고 다녔 듯한 마차가 입구에 놓여있었다. 작고 아담한 박물관의 모습이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관이 초라하기 이룰데 없었다. 이 깊은 시골에서 난 인도네시아의 여성 해방의 선구자로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갖춰져있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까르띠니 여사 덕분에 즈빠라가 나무와 가구의 도시가 되어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올바른 대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즈빠라에는 유럽에서 온 가구 회사들이 많아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가구회사와 가구상점이 많이 있고, 더불어 유럽 음식을 파는 식당이 많이 있다. 그중에 몇 퓨전 레스토랑은 맛이 아주 좋아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염전과 직조 마을도 즈빠라에 있어서 가끔 마음을 정리할 때 그곳을 찾으면 좋다고 한다. 염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염전의 독특한 풍경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데 알맞은 것 같았다.



스마랑에서 첫날의 저녁은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택한 호텔 그랜드 쟈니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스마랑에서 보기도문 규모가 있는 곳이고, 로비에 현대 조각등 미술 작품이 많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웅아란 산을 향해 가보았다.

웅아란산은 자카르타의 뽀짝 같은 곳이었다. 웅아란산에는 8세기 힌두교 사원이 9군데 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5군데가 남아있었다.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산의 절벽마다 힌두교 사



원이 지어져 있고, 고대의 인도네시아 역사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산이 적당히 높은데도 독특하고 아름다운 산이었다. 지대가 높아서 다른 데보다 시원했다. 멀리 스마랑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짝 펼쳐진 곳이었다

이 힌두사원은 신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원에는 시바사원의 벽면 장식을 한 아가스티야, 가네사, 두르가 등 힌두 석상의 부조가 새겨져 있었다. 사원군이 엄청 컸던 거 같은데 터만 남아있고, 더 많은 사원은 무너져서 없었다. 고대에도 틀림없이 이곳은 신성한 성지였으리라. 산 안쪽 깊숙이에는 작은 분화구가 하나 있고 그곳에서 물과 김이 펄펄 끓어올랐다.

여기 중부 자바의 힌두 사원도 화산 분화구가 있어서 웬지 더 신비로워 보였다.

힌두사원을 다 돌아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하다 보니 산책코스가 참으로 시원하고 소담스럽다. 산세 깊은 곳에 아름답게 지어진 힌두사원군이였다. 다섯 개의 힌두사원을 다 돌아보는데 2시간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구름이 걸려 있는 힌두사원은 터만 봐도 참으로 경이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멋스러웠다. 산속에 있는 힌두 사원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데가 바로 신앙의 순례길로 신앙인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경외감이 들었다.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한다면 이런 장소가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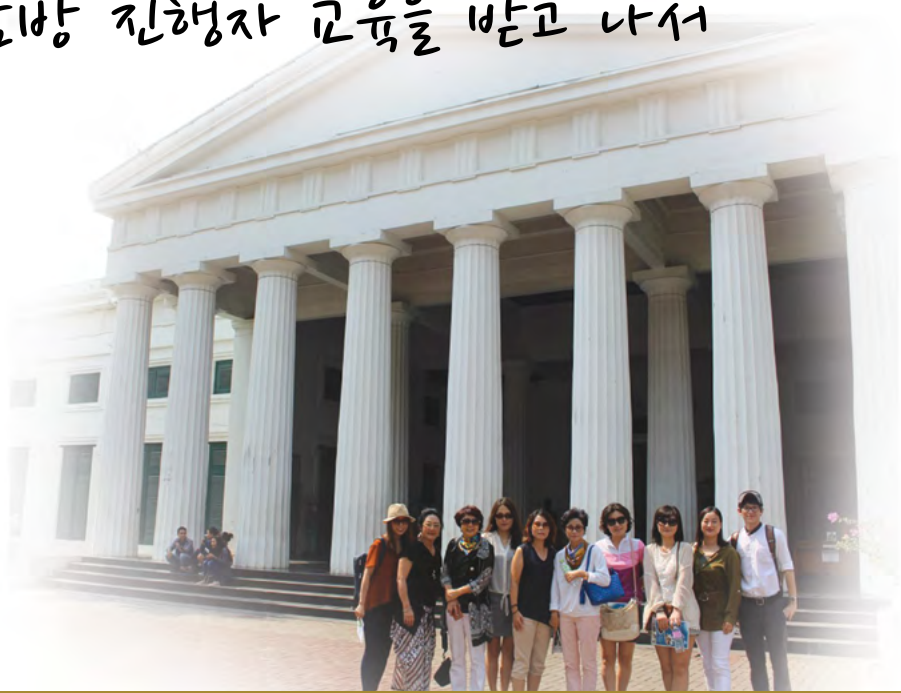
거기서 15분 정도 차로 가자 온천으로 유명한 수잔 리조트가 나왔다. 자연 경관이 아주 멋지고 산 중턱이라 시원한 곳이었다. 우린 산을 내려가서 삼뽀콩이라는 중국 절에 갔다. 중국절답게 기와랑 지붕이 모두 빨간색이었다. 넓직한 마당에 햇볕이 강하게 쬔고 있었다. 큰 정화스님의 동상이 한쪽으로 눈에 확 띄게 보였다. 중국에서 거대한 상선을 이끌고 여러차례 원정대를 진두지휘하여 엄청난 무역을 했다는 정화는 원래도 2미터가 넘는 장신이었다고 하더니 정화동상도 거대해서 옛날 살아있는 정화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역사의 유적이 깃든 스마랑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축복받은 도시다. 바닷가에 가까이에 있는 산과 언덕에 지어진 많은 집들이 아담하고 정겹다. 역사가 깃든 도시 스마랑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하나의 안식처로 마음의 고향이다. 한번 가본 곳이지만 즈빠라는 공기가 넘 깨끗하여 별과 달이 초롱초롱한 오염없는 도시라는 인상이 남게 되었다. 별로 멀지않은 아름다운 도시 스마랑과 즈빠라는 중부 자바의 보석과 같이 빛나고 살기좋은 곳이다.

즈빠라 한인회는 토요 한글학교 운영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유럽 KOTA TUA 정기탐방 진행자 교육을 받고 나서



최우호 (UI BIPA)

한 *인니문화연구원 밴드에서 광고를 보았다.
<바타비아의 역사를 간직한 파타힐라 광장에서 네덜란드 시대로의 여행을 안내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오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역사를 공부하면서 꼬따 뚜아 전문 탐방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알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하였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다는 예감에 가슴이 설레었다.

1차 교육은 5월 23일 (토) 9시-14시 까지 8명의 봉사 희망자와 함께했고, 2차 교육은 6월 13일 (토) 9시- 16시까지 11명 희망자와 함께 하였다. 1,2차 교육 모두 예정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숨 막히는 자카르타 고속도로를 뚫고 도착한 곳에 작은 유럽이 있었다.

광장에 가지각색의 분장을 한 거리의 예술인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을 지나 건축된 지 200년이 된 건물에 자리 잡은 카페 바타비아에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바타비아에 들어서는 순간 카페인지 문화유산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놀랐고, 2층에서 광장 전체를 내려다보며 인도네시아 속의 작은 유럽의 보존상태에 또 한 번 놀랐다.

사공 경 원장님의 설명으로 알게 된 이곳 꼬따 뚜아는 외적으로는 훌륭하게 역사적 가치를 지켜낸 인도네시아의 보물이며, 내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아팠던 350년 식민통치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철창이었다. 교육받는 시간내내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양 열강들의 잔인함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종교 탄압하지 않은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았다. 물론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그리고 시대별 통치자들의 성품에 따른 변화를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와양박물관과 미술박물관을 공부 할 때는 인도네시아 근 현대를 대표하는 미술가들은 제겐 생소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인들의 세계관과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공 경 원장님과 반둥 문화탐방 때 뵈고 함께 사진도 찍었던 유명한 수나르요 선생님과 노만 선생님처럼 미술박물관에서도 역사 속의 열정적인 화가, 전설적인 화가를 만났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예술가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존하려 노력하는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치욕의 역사인 바타비아시절의 건물(세 박물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놀라웠다. 1995년 조선총독부 철거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철거가 결정되자, 치욕스런 역사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이 옳다며 반색하던 어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아픔에 대처하는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면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1차 교육을 하면서 박물관 내부의 영성해 보이는 모습이 의아했으나 2차 교육 때 느낀 점은 있는 그대로의 보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작은 지식이라도 혼자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의 교육에서 더 많이 배우고 느껴서 9월부터 시작되는 자원봉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아울러 경복궁과 숭례문 앞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제 모습도 그려보며 글을 마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8:50 카페바타비아 1층 집결
9:00-10:30 역사, 와양, 그림조각도자기 박물관 답사
10:30-12:30 카페바타비아 2층 영상 수업
12:30-13:30 점심 식사 및 카페바타비아 탐방
13:30-15:30 심화수업(희망자) 박물관 탐방 9월 5일(토)부터 진행됩니다.

꼬따 정기탐방 봉사자 문의: 팀장 최문정
085282662293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마을, 따나 토라자 (Tana Toraja) 제 2편

지 상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놀랄만한 개성들로 현란하고 신비롭다. 그들의 문화는 다양할 뿐 아니라 문화의 특수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토라자족의 특이한 전통가옥과 신비한 장례식을 보면 다양한 세계화에 기여할 오리지널 문화임을 알 수 있다.

Rambusolo라 부르는 전통 장례식 (Upacara Adat Kematian)

토라자족은 장례식을 위해 한평생을 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례 축제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삶보다 죽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장례식을 토라자 말로는 Rambusolo라고 한다. ‘해가 지니 슬프다.’는 람부솔로의 뜻처럼 장례는 해가 지는 오후에 시작한다. 4일(집안에 따라서는 7일)동안 계속 되는 장례식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축제이다. 장례비가 만들어질 때까지 혹은 부부나 가족을 합장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또한

그 기간이 고인이 생전에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를 모두 풀고 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시신이 안치된 방에 지인들이 가서 사과를 하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기도 한다. 시신이 안치된 방에 방부제나 향신료, 특히 커피를 많이 사용한다. 사람이 죽어도 3일간은 죽지 않고 아프다고 생각하여 옷을 입혀서 얹혀놓고 평소와 같이 음식을 주고, 지인들이 시신의 방에 들어간다. 또 뜰에는 대나무를 심어 놓고 그곳에 조상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탐방 회원들은 동네 입구에 장례식이 있다는 징표인 흰색 작은 깃발을 따라서 갔다. 우리도 하객으로 그들의 둘째 날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이날은 손님 방문의 날로 많은 친척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울음 보다는 오랜만에 재회한 가족들과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토라자 지역은 네 개의 계층이 있는데 모든 의식에 물소나 돼지를 준비한다. 때로는 말, 사슴도 준비한다. 검은 점이 있는 물소는 많지 않아 비싼데 돌연변이로 나오며 까만 물소가 가장 저렴하다.



장례를 위해 제 1신분은 24마리의 물소를 준비하는데 최고 100마리까지 준비한다. 제2신분은 12마리, 제3신분은 4-8마리, 하층 계층은 1마리이다. 이렇게 계층에 따라 물소를 잡는 수가 다르다. 의식이 끝난 후 머리는 족장이 먹고, 등 부분은 손님을 위해, 다리는 일반 손님, 배는 그날 일한 인부를 위해, 내장은 빈자를 위해 내놓는다.

또라자의 귀족 계급 중 가장 높은 Puang 가족의 장례식은 웅장하다고 한다. 많은 물소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돼지, 닭을 준비한다. 장례식은 고인이 소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2마리의 소를 재물로 드리는 의식으로 시작 된다. 또한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소는 이 곳의 종교가 힌두와 기독교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셋째 날의 이벤트는 22마리의 소를 모두 죽여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장례식에 사용 되는 총 24마리의 물소는 또라자에 있는 24가지의 소 종류를 의미한다.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소나 돼지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이날은 행복하다. 마지막 날에는 드디어 관을 옮기는 의식이 거행 된다. 발인은 집안의 전통에 따라 퉁꼬난으로 가기도하고 돌무덤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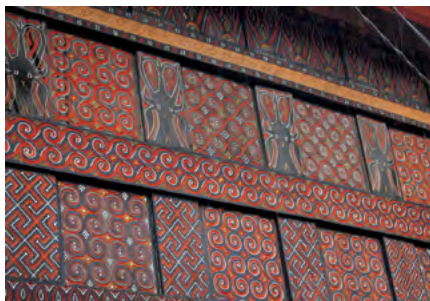
가기도 한다. 상여를 메고 가면서 합성을 지르고 행가래를 치기도 한다. 이는 슬픔을 누르고 상여꾼들에게 힘도 주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뜻한다고 한다. 발인에배 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른다. 이처럼 이들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장례풍습은 조상 숭배가 아니라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다.

솔라웨시 전통 가옥인 Tongkonan

또라자 (Toraja)족의 전통가옥 ‘퉁꼬난 (Tongkonan)’은 높은 각주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배를 얹어 놓은 듯한 형태다. 죽음을 무릅쓴 긴 항해 끝에 도착한 그들은 토착민에게 쫓겨 산속으로 타고 온 배를 끌고 갔다. 조상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과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염원과 배의 제작법을 잊지 않으려고 퉁꼬난을 지었다. 퉁고난의 지붕은 대나무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양철, 아연판으로 짓고 있다. 퉁꼬난 안쪽은 침실과 주방으로 운영된다. 퉁꼬난은 생활도 하고 장지로 가기 전까지 시신을 보관하는 곳이다. ‘퉁꼬난’은 ‘같이 앓다’를 뜻하는 ‘퉁꼰 (Tongkon)’에서 유래되었다. 한 곳에 여러 Tongkonan을 같이 세워 거주하는 퉁꼬난의 앞쪽에 곡창으로 사용하는 작은 퉁꼬난을 세운다. 곡창의 2층은 옥수수나 쌀 같은 농작물을 보관하고, 1층 마루에는 농사 장비, 합판과 나무, 수레를 보관하고, 1층 아래에서 가축을 기른다.

퉁꼬난은 지위와 역할에 따라 크기와 장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통 가옥은 현판과 거실, 내실, 침실로 이루어진다. 여러 채의 퉁꼬난 중 가장 중





심이 되는 가옥 앞에는 물소의 뿔이 열을 지어서 걸린다. 전쟁에서 이기면 집 앞에 적장의 목을 걸어 놓아 용맹스러움을 알렸다고 한다. 나중에 속죄의 의미로 적장의 장사를 치러주고, 소의 뿔을 집 앞에 장식 하게 되었다. 또 물소는 장례를 알리거나 성대하게 치렀는지도 알 수 있는 징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소는 가문의 자부심이 되었다. 또 물소의 뿔은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부드럽게 잘 그려진 뿔은 집주인의 지위를 나타내며, 조각이 복잡하고 화려할수록 계급이 높다.

Tongkonan에 새겨져 있는 문양의 의미의 주제는 “삶과 죽음”이다. 모든 생명이 종교에 뿌리를 두어야 죽음이 의미가 있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또한 생명의 선물로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을 지키는 철학도 담겨 있다. 가옥 정면 위쪽에 태양 위에 있는 닭 문양을 볼 수 있다. 태양이 닭처럼 운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betel 나뭇잎의 문양은 주로 태양 모티브 아래에 새겨져 있다. betel 나뭇잎은 추수 감사를 나타낸다. 물소 뿔이 위쪽을 가리키고 병렬로 줄지어 있다. 상향된 물소 뿔은 Tongkonan에 의해 의인화 된 사회적 관계를, 병행은 평등을 의미한다. 또한 물소 뿔은 건강과 번영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겸손을 상징하는 익은 벼, 삶에는 굴곡이 있다는 의미의 파

도도 문양으로 사용한다. 문양의 색깔은 죽음, 어둠, 슬픔을 뜻하는 검정색, 삶과 뼈를 상징하며 정직과 행복을 뜻하는 흰색, 하느님의 축복을 뜻하는 주황색, 태양을 상징하며 생명과 삶을 나타내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이처럼 동고난의 필수 문양인 태양, 수탉, 물소 그리고 병행(병렬)문양을 새겨 넣고 십자가도 단다.

닭싸움은 마나 토라자에서 명예로운 취미이자 의식의 일부이다. 시비를 가릴 일이 생기면 닭싸움을 통해 시비를 가린다. 자신의 닭의 민첩성을 자랑하는 닭싸움은 느긋한 일요일 오후에 많이 볼 수 있다. 토라자인을 상징하는 닭처럼 슬기롭고 용맹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조화롭게 잘 지켜나가기 바라며 토라자를 내려 왔다.

Tongkonan과 전통 장례는 예술로 남아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있다. 몇 백 년이 넘는 동고난의 지붕에는 풀들이 무성하지만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동고난은 토라자족과 함께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들만의 상징이자 우주의 실체이다. 유럽인들은 토라자를 인도네시아의 에덴동산(Pegunungan Eden Indonesia)이라고 부른다. 태양이 닭처럼 우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토라자들이 에덴의 아름다운 정경들을 허공의 여백 속에 지켜나갔으면 한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순간 & 영원



[사진] 김성월 / 대한민국

화산재 날리는 산허리 뚫으며
새벽을 깨우러 간다
달려야 할 때와 걸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말들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저기 사람의 마을로 가자
곧 지워져버릴 발자국이라 해도
이 길을 버티고 가는 자만이
젓빛 적막한 시간과 불온하게 끓는 공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큰 기침이 되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의 형법이나 공법의 형사처벌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치외법권이 주어진 대사관 직원과 가족 이외의 외국인은 거주자이던 방문자이던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자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현지법과 현지어에 능숙하지 않는 외국인은 변호사와 통역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겪고 있는 형사사건은 강력사건은 드물며 대부분은 사업에 관련된 사건으로 사업 당사자 간에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변진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해서 상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해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종결짓겠다는 의도로 형사 고소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 5대 요소를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형사사건에 피의자 혹은 고소자가 된 외국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1. 출두요구서

1.1. 어떠한 경위나 상황에서 출두요구서를 받으면 정당한 입장에 있던지, 부정당한 입장에 있던지 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서 출두요구서의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한 후에 출두가 필요하다. 우선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요구를 받았을 때는 피의 형법 조항을 확인하고 출두해야 한다. 사전 준비 없이 출두에 응했다가 출두-신문-구속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1.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해진 출두 시간에 응하며,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출두지연 요청을 하면 출두지연이 용인된다. 정해진

출두시간을 사유를 내세워 미뤄놓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심사숙고 후에 출두에 응하는 방법도 있다.

1.3. 출두지연 요청을 하지 않고 2번 출두 명령에 불응하면 통상 체포명령서가 발부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출두요구서나 체포명령서는 사법경찰관이 식은 죽 먹는 것 처럼 쉽게 발부할 수 있으며, 현실이 그렇다.

1.4.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한인동포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 1.4.1. 경찰 : - 경찰청 본청(전국 관할)
 - 지방 경찰청(도 관할)
 - 지역 경찰본부(광역 행정구역 관할)
 - 경찰서(시/군 관할)
 - 경찰지서(구/동/면 관할)
- 1.4.2. 이민청 : - 이민청 본청(전국 관할)
 - 법무부 지방청(도 관할)
 - 이민국(지역 관할)
- 1.4.3. 노동부 : - 노동부(전국 관할)
 - 지방청(도 관할)
 - 노동국(시/군 관할)

2. 신문 받을 시 유의 해야 할 사항

2.1. 외국인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언어로 신문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즉 통역을 통해서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역 준비 의무는 피의자인 외국인에게 있지 않고 수사관에게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통역을 준비 할 수도 있다. 완전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어나 영어로 신문에 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아주 높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시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 조서에 서명을 하고 오랫동안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통역이 준비되지 않으면 신문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거부 시에 심신의

모욕을 당하거나 신문실에서 밤을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문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드는 것보다는 더 낫다. 한국말로 신문을 받아도 신문관의 유도신문에 걸려드는데, 일상용어 정도의 인도네시아어 실력으로 신문에 응하고 신문 조서에 서명을 해 버리면 십중팔구는 자해행위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2.2. 범행 사실이 없으면 끝까지 완강하게 범행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 ‘Tidak apa-apa’ (괜찮다)라는 신문관의 종용에 귀가 솔깃해 지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인격 모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끝까지 부인해야 한다. 범행 사실 시인이나 부인은 “예” . “아니오” 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2.3. 범행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는 사실대로 시인하고 수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결과로 범행이 사실로 판명되면 모욕이나 폭행 뿐만 아니라 고의수사망해로 간주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2.4. 신문을 마치면 신문조서에 서명을 요구받는다. 조서 내용이 본인 진술내용과 다르면 내용 정정을 요구해서 사실대로 정정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 준다. 얼마 전에 마약사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한인동포가 조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필자가 신문조서내용을 검토해 보니, 마약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이 피의자의 소유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Ya” (예)라고 대답한 한마디가 피의자를 어렵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사실은 피의자는 이 물건을 본적도 없고 둔적도 없고 만져 본적도 없는데 “Ya” 라고 대답한 것은 수사관의 유도 질문과 “Tidak apa-apa” 라는 부드러운 음성과 서투른 자신의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믿고 저지른 중대한 실수이다. 신문조서 내용이 유죄, 무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기억하고 서명에 임해야 한다.

3. 체포

3.1. 체포명령권은 사법경찰에게 있다.

경찰관 뿐 만 아니라 이민청 공무원, 노동부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관세청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입업부 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 중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다. 권총을 찬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의 가정집에 가서 외국인 인허가 서류를 조사해도 불법이 아니고, 엄연한 공무집행이라는 현실을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 곳이 인도네시아이며, 이때에 기본 서류(여권 및 KITAS)가 없으면 연행에 또한 응해야 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이다.

3.2. 체포명령서 제시의무

현행법을 제외한 체포는 반드시 사전에 체포명령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체포명령서 없이 체포하려고 할 때는 체포를 거부할 수 있다. 체포 시에는 반드시 체포명령서의 사본을 가족에게 줘야한다

3.3. 체포 시간

체포해서 억류 시한은 최장 24시간이다. 24시간 이상 억류는 불법이다.

4. 구속

4.1. 구속권이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

4.1.1. 사법 경찰관 및 사법 경찰관의 명령을 받은 사법 경찰관

4.1.2. 검사

4.1.3. 판사

4.2. 구속에 해당되는 범법 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4.2.1. 최장 징역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자.

4.2.2. 징역 최장 5년 이하에 해당하는 혐의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구속한다.

4.2.2.1. 상습 포르노 매개체 거래범

4.2.2.2. 상습매춘에 관여된 자

4.2.2.3. 강제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든 자

4.2.2.4. 폭행범(치사 혹은 치상이 없어도 해당)

4.2.2.5. 사전에 폭행하겠다고 계획한 후에 폭행한 자

4.2.2.6. 횡령자(업무상 횡령은 가중 처벌함)

4.2.2.7. 사기자

4.2.2.8. 물건을 사고 상습으로 물건 값을 갚지 않은 자

4.2.2.9. 승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선장 혹은 선원

4.2.2.10. 장물 취득자

4.2.2.11. 권리가 없으면서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저당 잡고 빌려준 자

4.2.2.12. 관세범

4.2.2.13. 합법적인 출입국 서류가 없는 외국인 및 그런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도움 준 자

4.2.2.14. 마약 사범

4.2.2.15. 상기에 열거한 혐의가 아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국인 피의자는 출국/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을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4.3. 구속 장소

4.3.1. 경찰 유치장, 검찰 유치장, 교도소

4.3.2. 피의자의 자택

4.3.3.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이 경우에는 매주 정해진 날짜에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할 의무가 주어진다. 서류상으로는 계속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거주지 도시 내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이 허용된다.

4.4. 구속적부 심사요청

피의자 자신, 가족 혹은 변호인은 구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구속에 합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다.

4.5. 구속기한

4.5.1. 수사단계 : 처음 최장 20일간이나 2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40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60일간)

4.5.2. 공소단계 : 처음 최장 20일간이나 2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30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50일간)

4.5.3. 지방법원 재판 단계 : 처음 최장 30일간이나 3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60

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90일간)

4.5.4. 고등법원 재판 단계 : 처음 최장 30일간이나 3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60

일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90일간)

4.5.5. 대법원 재판 단계 : 처음 최장 50일간이나 50일이 지난 후에 최장 다시 60일

간 연장 구속이 가능하다. (총110일간)

4.5.6.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가 심신장애를 받고 있거나 징역 최장 9년 이상에 해당

하는 범법혐의 시에는 모든 연장 단계에서 제 1차 연장 30일간, 제2차 연장 30

일간이 가능하며 총 30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4.6. 구속 집행 사실 통지의무

피의자를 구속 시에는 반드시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대사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이 구속되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정식 통지가 간다.

5. 피의자의 권리

5.1. 신속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

5.2. 통역을 통해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통역 없는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

5.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변호인 입회없는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

5.4. 가족, 변호인 및 성직자 등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결 언

6.1. 형사 피의자로 출두명령서를 받거나 체포되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 이전에 곧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으로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경한 사건으로 소견을 듣거나 거꾸로 당사자는 경한 사건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사건이라고 소견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려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털어 놓고 이야기해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된다. 변호사와 자문 후에 사건처리 방향을 잡은 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수사관계자들의 행태가 부당하고 한심스럽게 생각되어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건 처리에 임해야 한다. 일단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이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지 실정이다. 억울한 사건의 경우일지라도 감정 표현을 하지 말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3. 처음부터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수사에 협조해서 상황 진행을 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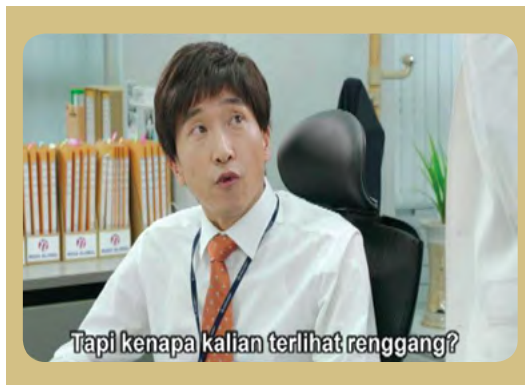
6.4. 특히 경제 문제로 분쟁이 생겨 야기된 형사 사건은 분쟁 상대와 분쟁 해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일단 형사 사건이 되면 양자가 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지 실정이니 형사 사건의 원인이 된 민사 사건을 직접 혹은 중재자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해서 형사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도 있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한국의 메르스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5월의 신부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혼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래들어 20주년 30주년 매 10년을 분기로 서로
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몇 년마다 의미를 부여하며 선물을 주
고받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축하 한다고 합니다. 25주
년 은혼식 60주년때 회혼식 정도 챙기는 것 같습
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만큼 수명도 길어
진 게 사실이지만 요즘처럼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거나 가족들을 떼
어 놓기도 합니다.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 “**Rumah Biru**” 은
수와 현도의 사랑을 지지하던 지완은 그 둘이
배다른 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상황하에 현도에
게 은수와 헤어지라고 말한 후 서로의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행동하지만 예전같지 않게 거리감
이 생깁니다.

단짝 처럼 지내던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
운을 느끼며 팀장이 현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왜 이렇게 어색해 보여?

Tapi kenapa kalian terlihat renggang?

사전적 의미의 어색하다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대면하여 자연스럽
지 못한 상태, 격식이나 규범 관습 따위에 맞지 않
아 자연스럽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1돌 Paper Wedding(지혼식)
- 2돌 Straw Wedding(고혼식)
- 3돌 Candy Wedding(당과혼식)
- 4돌 Leader Wedding(혁혼식)
- 5돌 Wood Wedding(목혼식)
- 10돌 Tin Wedding(주석혼식)
- 12돌 Silk Wedding(비단혼식)
- 15돌 Crystal Wedding(수정혼식)
- 20돌 China Wedding(도혼식)
- 25돌 Silver Wedding(은혼식)
- 30돌 Pearl Wedding(진주혼식)
- 35돌 Coral Wedding(산호혼식)
- 40돌 Ruby Wedding(루비혼식)
- 45돌 Sapphire Wedding(사파이어혼식)
- 50돌 Gold Wedding(금혼식)
- 60돌 Diamond Wedding(금강혼식, 다이아몬드혼식)
- 70돌 Platinum Wedding(백금혼식)
- 80돌 Oak Wedding(오크나무혼식)
- 90돌 Stone Wedding(석혼식)

(부끄러워서) ‘민망한, 쑥스러운’ 이라는 표현과는 다른 ‘낯설다. 거리감이 있다. 어색하다. 멀게 느껴지다. 격이 있어 보인다.’ 등 비슷하지만 그 뜻이 다른 단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 Renggang : 1) 사이가 벌어지다. 촘촘하지 않다. 덜 가깝다(친분따위가) 처럼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질 때나 어색함을 느낄 때, 2) 앞 뒤 또는 좌우의 간격을 유지하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

[1. kurang erat (tt persahabatan, dsb) 2. ada celahnya (antaranya, sela-selanya); tidak rapat]

- Beri jarak pada barisan agar terlihat renggang (Jarak)
- 줄간 간격을 줘서 거리감이 있게 해라
- Hubungan dua sahabat itu renggang karena seorang wanita. (Asing)
- 여자 때문에 두 친구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 (어색해짐)
- Bagian yang renggang harus dirapatkan agar air tidak masuk. (Celah)
- 벌어진 부분을 단단히 채워야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2. Berjarak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낼 때, 시간이나 장소의 여백, 간격, 사이로 표현된다.[ada antaranya (jaraknya) Jarak = ruang sela (panjang atau jauh) antara dua benda atau tempat]

- Rumahku dan rumah budi hanya berjarak dua rumah. (Jauh)
- 우리집과 부디의 집은 두 집 간격밖에 안된다.
- Perjalanan Bandung-Jakarta berjarak 150 Km. (Panjang)
- 만둥에서 자카르타까지는 150 Km 거리다.

3. Asing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외국의, 낯선, 고립된, 다른, 보통이 아니어서 유별나 보이는’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1 aneh; tidak biasa 2 belum biasa; kaku: 3 datang dari luar (negeri, daerah, lingkungan): 4 tersendiri; terpisah sendiri; terpencil: 5 lain; berlainan; berbeda]

- Andi masih merasa asing tinggal di rumah baru. (Belum biasa)
- 안디는 아직 새집에서 지내는게 어색하다 .
- Banyak warga asing yang mempelajari kebudayaan Indonesia. (Datang dari luar)
-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공부한다.

4. Menjauh ‘원 거리, 심하게 격한, 단연, 몹시, 피하다, 거리를 유지하다.

[1 pergi (berjalan) ke arah yg (lebih) jauh; menghindar jauh 2 menjadi jauh 3. Sekali (Banyak)

- Dia menjauh saat aku mendekat, dia mendekat dan aku pun menjauh. (Menghindari)
- 내가 다가가면 그가 피하고, 그가 다가오면 내가 피한다.
- Warga dihimbau agar segera menjauh dari pusat bencana.
- 주민들에게 재해지역에서 즉시 떠날 것(대피)을 알렸다(호소하다). (Pergi ke arah yang lebih jauh)
- Lukisan ini jauh lebih bagus dari pada yang lain (Sekali)
- 이 그림이 다른 그림보다 훨씬 좋다.

2015년 안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USD)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5	19,963
2	한인회 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2015	20,000
3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NISSI GROUP	2015	5,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	2015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5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5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5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DAEWOO SECURITIES IND.	2015	5,000
9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5	5,000
10	한인회 부회장	배 응 식	PT. KYUNGSEUNG TRADING IND.	2014/2015	10,000
11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5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이 재 학	PT. KEB HANA BANK	2015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OAH MARINE	2015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BO JAYA	2015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5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5	5,000
17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SEPULUH SUMBER ANUGRAH	2015	5,000
18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5	1,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5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5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5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5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5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PUTRA HANKUK	2015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이 승 민	PT. YSM & PARTNERS	2015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5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5	1,000
28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5	1,000
29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5	1,000
30	한인회 이사	김 동 상	PT. HONGIK INDONESIA	2015	1,000
31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5	1,000
32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SJ GLOBAL INDONESIA	2015	1,000
33	한인회 이사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5	1,000
34	한인회 이사	김 종 성	PT. BONGMAN INT'L	2013/2014	2,000
35	한인회 이사	김 종 현	PT. KOIN BUMI	2015	1,000
36	한인회 이사	김 현 재	PT. TOUR 153	2014/2015	1,986
37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5	1,000
38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5	1,000
39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5	1,000
40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5	1,000
41	한인회 이사	서 영 름	PT. PRATAMA ABADI	2015	1,000
42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5	1,000
43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 IL	2015	1,000
44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5	1,000
45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5	1,000
46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INDONESIA	2015	1,000

47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5	1,000
48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5	1,000
49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5	1,000
50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PT. L S W	2015	1,000
51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5	1,000
52	한인회 이사	이 윤 상	PT. PAKUWON GROUP	2015	1,000
53	한인회 이사	이 주 한	PT. MEDISON JAYA RAYA	2014/2015	2,000
54	한인회 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5	1,000
55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5	1,000
56	한인회 이사	임 성 필	PT. LSP	2015	2,000
57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5	1,000
58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5	1,000
총 금액					174,949

2015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2015년 7월 1일 기준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1	승 은 호	2015	300,000
2	신 기 업	2015	300,000
3	조 규 철	2015	300,000
4	김 재 민	2015	300,000
5	김 대 근	2015	1,300,000
6	조 영 재	2015	1,300,000
7	김 양 임	2015	300,000
8	안 창 섭	2015	300,000
9	HORISON FORBIS HOTEL	2015	3,000,000
10	김 영 룰	2015	1,300,000
11	오 세 명	2015	300,000
12	김 창 근	2015	1,300,000
13	최 양 기	2015	300,000
14	홍 석 영	2015	300,000
15	강 재 덕	2015	300,000
16	승 진 아	2015	300,000
17	오 세 윤	2015	300,000
18	강 희 중	2015	300,000
19	최 석 일	2015	300,000
20	김 평 수	2015	10,000,000
21	PT. INDOKO SAKTI	2015	1,300,000
22	신 규 태	2015	300,000
23	박 재 한	2015	300,000
24	배 응 식	2015	300,000
25	김 영 환	2015	300,000
26	이 현	2015	300,000
27	최 우 범	2015	300,000
28	신 규 태	2015	300,000
총 금액			Rp.26,100,000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5949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60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둥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무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쿠퍼비스,
-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담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양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중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인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 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8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19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워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타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 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우리(씨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춘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디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SIS (NUSADUA)	770 256
A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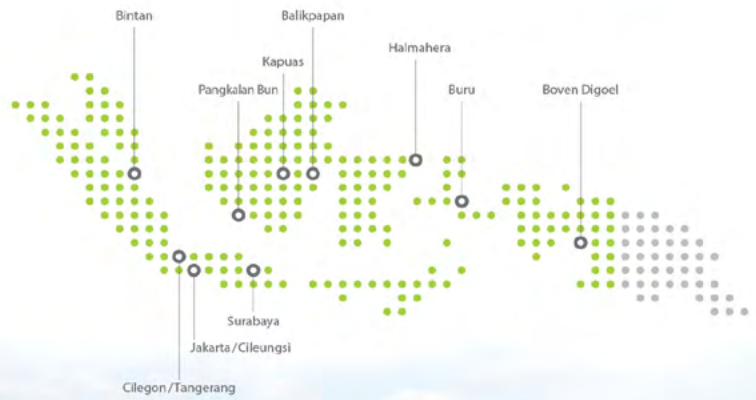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펄프업,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나름’이 아닌, ‘다름’

삼성이노베이션센터

모든 사용이미지는 본사 디자인 디렉터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사진입니다.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el 021.7919. 006(Rep.) Fax 021.7919.2062



Chung-Dam Beauty Salon



POSCO INDONESIA INTI



KBS Media Center



Haesley Ninebridge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